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국문 초록

칸트에 따르면 아름다움은 대상의 객관적 속성이 아니라 주관의 특수한 감정이며, 또한 쾌·불쾌의 감정이 인식능력 및 욕구능력과 더불어 인간을 구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이상, 우리는 아름다움이 주관의 원리에 근거한 인간 고유의 가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자연히 칸트 미학은 대상의 미적 속성의 분석 대신 미적 판단의 주관적 원리의 분석을 핵심과제로 삼는다. 칸트는 미적 판단이 주관의 선험적 합목적성에 기반을 두는 판단임을, 나아가 미적 쾌감이 이 판단의 기준임을 주장한다. 따라서 칸트 미학의 정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합목적성¹⁾과 미적 쾌감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가 필히 선행해야 한다. 이 글은 칸트 미학에서 합목적성과 쾌감의 긴밀한 연관에 착안하여 앞으로 아름다움이 자유로운 주체로서의 인간이 지닌 감정과 연결되어 있으며, 아름다움을 판정하는 주관은 미적 쾌감에 대한 반성을 통해 주관적 자유를 의식하는 데에 나아간다는 것을 주장할 것이다.

“미는 대상의 합목적성의 형식(B61)”이라는 규정에서 단적으로 알 수 있듯이, 칸트의 미학에서 아름다움과 합목적성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칸트에 따르면 미적 합목적성은 유용성이나 완전성과 같은 대상 자체의 객관적 합목적성이 아니라, 주관적 합목적성, 즉 대상이 주관의 능력에 근거하여 합목적적인 것으로 표상되는 것을 말한다. 동시에 미적 합목적성은 객관적 목적 혹은 궁극목적²⁾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목적 없는 합목적성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것은 미적 합목적성에서 목적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목적의 개념에 제한되거나 목적에 따른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글은 미적 합목적성이 단순히 객관적 목적이 배제된 것이라는 기존 연구들의 소극적 주장에서 더 나아가, 미적 합목적성의 판정에서 주관은 자유에 도달하고자 하는 스스로의 궁극적인 목적을 발견한다는 것을 주장하며, 이 주장을 바탕으로 미적 합목적성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미적 합목적성에는 객관적 목적이나 궁극목적²⁾이 전제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주관은 미적 쾌감의 원인성에 자유라는 주관의 궁극적 목적이 자리함을 반성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자

1) 칸트는 『판단력 비판』에서 반성적 판단력의 원리로 자연의 합목적성을 제시하고, 자연의 합목적성을 주관적 합목적성과 객관적 합목적성이라는 두 종류로 나누어 각각 이 책의 제1부와 제2부에서 고찰한다. 자연의 합목적성은 규정근거를 쾌감에 둔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주관적 원리이지만, 칸트는 합목적성이 주체의 능력과 관련되었을 경우 주관적 합목적성으로, 객관들의 관계와 관련될 경우 객관적 합목적성으로 재규정한다. 이 글에서는 취미판단의 원리로서의 주관적 합목적성을 ‘미적 합목적성’으로 규정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유가 개념이 아닌 쾌감으로 의식되며, 이 의식이 미적 경험을 통해 제공된다는 점에서 칸트의 미학은 비판철학 체계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철저히 미적 합목적성은 자유로운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능력을 고찰하는 비판철학의 맥락 안에서 제시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미적 합목적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적 쾌감과 그것이 지향하는 자유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이 글은 미적 합목적성의 이해의 실마리를 구하기 위해 미적 쾌감, 의도성, 자유라는 세 가지 개념에 주목한다. 미적 쾌감에 관해서는 그것이 가진 보편적 전달가능성을 중심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이 글에서는 미적 쾌감을 합목적성과의 연관성의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본디 쾌감은 합목적성과 긴밀한 연관을 갖는데, 쾌감을 느낀다는 것은 곧 어떤 의도나 목적이 충족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쾌감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것이 곧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미적 쾌감은 무관심적 쾌감이어야 하는데, 이는 그 발생에 앞서 목적이 전제되지 않더라도 목적의 달성에 의한 흡족을 느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미적 쾌감이 대상과 외적 목적의 부합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이 쾌감은 사전에 의식하지 못한 주관의 내재된 의도가 달성된 것임을 뜻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미적 합목적성의 분석은 다시 미적 쾌감의 근저에 자리하는 **의도성**을 규명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칸트 미학에서 의도성의 개념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지만, 의도성은 선형적 원리로서 합목적성의 고유한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며, 이 개념은 미적 합목적성에도 내재되어 있다. 합법칙성과 합목적성의 차이는 대상이 자연적으로 보이냐 의도적으로 보이냐에 있다. 합법칙성이 자연적인 인과관계를 내포한다면, 합목적성은 의도가 개입된 원인과 그 결과를 내포한다. 자연을 합법칙적으로 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자연을 이해하는 것이며, 자연을 합목적적인 것으로 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초감성적 자유에 닿고자 하는 이성의 요구에 따라 자연을 이해하는 것이다. 미적 쾌감은 자유에 닿고자 하는 이성의 근본적 의도가 달성되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미적 합목적성에는 자유를 지향하는 주관의 의도성이 개재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밝힘으로써 이 글은 『판단력 비판』에서 드러나는 특수한 종류의 **자유**에 도달한다. 이 자유는 주관적인 것인데, 1) 외적으로 존재하는 실재가 아니라 우리 이성에 근거하여 존재하는 것이며, 2) 개념이 아닌 쾌감으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연 안에서 자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를 미적 쾌감이라는 형태로 의식할 수 있다. 미적 쾌감이란 상상력과 지성이 지성의 법칙 및 실천이성의 법칙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유희함으로써 느끼는 쾌감이다. 이것은 감정으로 느껴지는 자유이자, 순수한 정신성에 의한 자유, 즉 이성적 인간이 가진 무

한한 자유이다. 주관은 자연대상의 아름다움을 관정함과 동시에 자유로운 이성적 존재로서의 자기의식을 획득하며, 이론적인 자유와 경험적이고 실천적인 자유의 단절을 ‘감정으로서의 자유’를 통해 연결하고, 자연과 자유의 매개라는 과제를 주관적 차원에서 달성한다.

칸트의 미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적 합목적성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미적 합목적성은 단순히 기존의 사유방식을 바탕으로 합목적적 표상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칙적 사유에서 합목적적 사유로 사유의 방향 자체를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반성적 판단력의 규정에 근거하여 합목적적 사유가 기존의 사유방식과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지적한 후에, 합목적성이 어떻게 미적 쾌감과 연결되는지, 그리고 아름다움을 통해 어떻게 자기의식에 도달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칸트의 미학에서 합목적성을, 합목적성에서 미적 쾌감을, 그리고 미적 쾌감에서 자기의식을 더욱 적극적으로 꺼내야 하는 것이다.

이 글은 자신의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리고 이를 통해 자유의 의식에 도달하고자 하는 미적 쾌감의 의도성에 주목하여 미적 합목적성을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인 입장으로 취하면서, Allison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에 주목하여 미적 합목적성을 해석한다. 첫째, 칸트의 합목적성은 결과로부터 그것의 원인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반성적 사유방식을 요구하는데, 그 과정에는 쾌감의 개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둘째, 주관은 외부에서 무규정적 쾌감의 원인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쾌감의 원인을 찾는 데에 자신의 내부로 방향을 돌리며, 미적 쾌감의 원인에 자유라는 주관의 목적이 자리함을 의식한다. 셋째, 자유로운 상태에 머물고자 하는 쾌감의 의도성에 의해 주관은 미적 대상을 반성하고 관조하고 음미하며, 이를 통해 주관은 자유로운 이성적 존재로서 자기의식을 획득한다.

칸트 미학의 의의는 감성의 능력 자체가 지니는 보편타당성을 보여주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 그리고 감성적인 것과 초감성적인 것을 주관 안에서 조화시키고 매개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사실은 오직 쾌감과 합목적성의 연관성에 주목하여 주관의 합목적성을 정확하게 규명함으로써 밝혀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합목적성이 요청된 배경에 근거하여 주관의 합목적성을 분석하는 것은 아름다움을 관정한다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 스스로를 자유로운 이성적 존재로서 재인식하게 한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칸트, 미학, 합목적성, 미적 쾌감, 주관적 자유, 자기의식

학번: 2013-22791

일러두기

본문에서는 칸트 주요 저작의 인용은 다음과 같이 표기하고자 한다. 『판단력 비판』 (Kritik der Urteilkraft)은 **KU**로 약칭하고 초판(1790)은 **A**, 재판(1793)은 **B**로 표기하여 면수를 병기한다. 『판단력 비판』의 제1서론은 이를 수록하고 있는 학술원판 전집 제20권을 'XX'로 표시한 후 면수를 밝히고, 제2서론은 이를 수록하고 있는 학술원판 전집 제5권을 'V'로 표기하여 면수를 밝힌다. 또한 『순수이성 비판』 (Kritik der reinen Vernunft)은 **KrV**로 약칭하고, 초판(1781)은 **A**, 재판(1787)은 **B**로 표기하여 쪽수를 병기한다. 번역은 주로 백종현 역(임마누엘 칸트, 백종현 역, 『순수이성 비판 1,2』 (아카넷, 2006); 임마누엘 칸트, 백종현 역, 『판단력 비판』 (아카넷, 2009))을 따랐으며 필요할 경우 수정하였다.

그 밖의 칸트 원저와 우리말 제목 및 약호의 예는 다음과 같다.

KpV : 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 『실천이성 비판』

Prol : Prolegomena zu einer jeden künftigen Metaphysik, die als Wissenschaft wird auftreten können, 『형이상학 서설』

Anth : Anthropologie in pragmatischer Hinsicht, 『실용적 관점에서 본 인간학』

목 차

1. 서론
2. 반성적 판단력과 합목적성의 요청
 - 2.1. 이성비판의 과제: 자연과 자유의 매개
 - 2.2. 반성적 판단력의 요청
 - 2.3. 판단력의 선형적 원리 : 자연의 합목적성
 - 2.4. 자연의 합목적성의 두 종류와 미적 합목적성의 역할
3. 쾌감과 합목적성의 연결
 - 3.1. 쾌감의 일반적 특성
 - 3.2. 형식적 합목적성의 가능성
 - 3.2.1. 일반적 합목적성
 - 3.2.2. 합목적성과 쾌감의 연결
 - 3.2.3. 형식적 합목적성
4. 미적 합목적성의 분석
 - 4.1. 미적 합목적성: 미적 쾌감에 대한 반성을 통해 주관적 자유 의식
 - 4.2. 매력과 감동 및 객관적 합목적성과 구별되는 미의 특성
 - 4.3. 미적 합목적성의 비판철학 내 체계적 위상
5. 결론

1. 서론

칸트에 따르면 아름다움은 대상의 객관적 속성이 아니라 주관의 특수한 감정이며, 또한 쾌·불쾌의 감정이 인식능력 및 욕구능력과 더불어 인간을 구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이상, 우리는 아름다움이 주관의 원리에 근거한 인간 고유의 가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자연히 칸트 미학은 대상의 미적 속성의 분석 대신 미적 판단의 주관적 원리의 분석을 핵심과제로 삼는다. 칸트는 미적 판단이 주관의 선험적 합목적성에 기반을 두는 판단임을, 나아가 미적 쾌감이 이 판단의 기준임을 주장한다. 따라서 칸트 미학의 정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합목적성²⁾과 미적 쾌감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가 필히 선행해야 한다. 이 글은 칸트 미학에서 합목적성과 쾌감의 긴밀한 연관에 착안하여 앞으로 아름다움이 자유로운 주체로서의 인간이 지닌 감정과 연결되어 있으며, 아름다움을 판정하는 주관은 미적 쾌감에 대한 반성을 통해 주관적 자유를 의식하는 데에 나아간다는 것을 주장할 것이다.

“미는 대상의 합목적성의 형식(B61)”이라는 규정에서 단적으로 알 수 있듯이, 칸트의 미학에서 아름다움과 합목적성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칸트에 따르면 미적 합목적성은 유용성이나 완전성과 같은 대상 자체의 객관적 합목적성이 아니라, 주관적 합목적성, 즉 대상이 주관의 능력에 근거하여 합목적적인 것으로 표상되는 것을 말한다. 동시에 미적 합목적성은 객관적 목적 혹은 궁극목적은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목적 없는 합목적성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것은 미적 합목적성에서 목적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목적의 개념에 제한되거나 목적에 따른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글은 미적 합목적성이 단순히 객관적 목적이 배제된 것이라는 기존 연구들의 소극적 주장에서 더 나아가, 미적 합목적성의 판정에서 주관은 자유에 도달하고자 하는 스스로의 궁극적인 목적을 발견한다는 것을 주장하며, 이 주장을 바탕으로 미적 합목적성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미적 합목적성에는 객관적 목적이나 궁극목적이 전제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주관은 미적 쾌감의 원인성에 자유라는 주관의 궁극적 목적이 자리함을 반성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자

2) 칸트는 『판단력 비판』에서 반성적 판단력의 원리로 자연의 합목적성을 제시하고, 자연의 합목적성을 주관적 합목적성과 객관적 합목적성이라는 두 종류로 나누어 각각 이 책의 제1부와 제2부에서 고찰한다. 자연의 합목적성은 규정근거를 쾌감에 둔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주관적 원리이지만, 칸트는 합목적성이 주체의 능력과 관련되었을 경우 주관적 합목적성으로, 객관들의 관계와 관련될 경우 객관적 합목적성으로 재규정한다. 이 글에서는 취미판단의 원리로서의 주관적 합목적성을 ‘미적 합목적성’으로 규정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유가 개념이 아닌 쾌감으로 의식되며, 이 의식이 미적 경험을 통해 제공된다는 점에서 칸트의 미학은 비판철학 체계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철저히 미적 합목적성은 자유로운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능력을 고찰하는 비판철학의 맥락 안에서 제시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미적 합목적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적 쾌감과 그것이 지향하는 자유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이 글은 미적 합목적성의 이해의 실마리를 구하기 위해 미적 쾌감, 의도성, 자유라는 세 가지 개념에 주목한다. 미적 쾌감에 관해서는 그것이 가진 보편적 전달가능성을 중심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이 글에서는 미적 쾌감을 합목적성과의 연관성의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본디 쾌감은 합목적성과 긴밀한 연관을 갖는데, 쾌감을 느낀다는 것은 곧 어떤 의도나 목적이 충족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쾌감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것이 곧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미적 쾌감은 무관심적 쾌감이어야 하는데, 이는 그 발생에 앞서 목적이 전제되지 않더라도 목적의 달성에 의한 흡족을 느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미적 쾌감이 대상과 외적 목적의 부합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이 쾌감은 사전에 의식하지 못한 주관의 내재된 의도가 달성된 것임을 뜻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미적 합목적성의 분석은 다시 미적 쾌감의 근저에 자리하는 **의도성**을 규명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칸트 미학에서 의도성의 개념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지만, 의도성은 선형적 원리로서 합목적성의 고유한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며, 이 개념은 미적 합목적성에도 내재되어 있다. 합법칙성과 합목적성의 차이는 대상이 자연적으로 보이냐 의도적으로 보이냐에 있다. 합법칙성이 자연적인 인과관계를 내포한다면, 합목적성은 의도가 개입된 원인과 그 결과를 내포한다. 자연을 합법칙적으로 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자연을 이해하는 것이며, 자연을 합목적적인 것으로 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초감성적 자유에 닿고자 하는 이성의 요구에 따라 자연을 이해하는 것이다. 미적 쾌감은 자유에 닿고자 하는 이성의 근본적 의도가 달성되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미적 합목적성에는 자유를 지향하는 주관의 의도성이 개재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밝힘으로써 이 글은 『판단력 비판』에서 드러나는 특수한 종류의 **자유**에 도달한다. 이 자유는 주관적인 것인데, 1) 외적으로 존재하는 실재가 아니라 우리 이성에 근거하여 존재하는 것이며, 2) 개념이 아닌 쾌감으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연 안에서 자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를 미적 쾌감이라는 형태로 의식할 수 있다. 미적 쾌감이란 상상력과 지성이 지성의 법칙 및 실천이성의 법칙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유희함으로써 느끼는 쾌감이다. 이것은 감정으로 느껴지는 자유이자, 순수한 정신성에 의한 자유, 즉 이성적 인간이 가진 무

한한 자유이다. 주관은 자연대상의 아름다움을 관정함과 동시에 자유로운 이성적 존재로서의 자기의식을 획득하며, 이론적인 자유와 경험적이고 실천적인 자유의 단절을 ‘감정으로서의 자유’를 통해 연결하고, 자연과 자유의 매개라는 과제를 주관적 차원에서 달성한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했을 때 미적 합목적성은 그것이 제시된 배경과 비판철학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개념에 기반을 두어 체계적으로 해석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를 염두에 두고 미적 합목적성을 해석하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첫째, <미 분석론>이 미적 쾌감의 보편타당성의 근거를 밝히는 것을 표면적인 주제로 삼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선험적 원리로서의 합목적성의 중요성이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칸트는 『판단력 비판』의 서문에서 반성적 판단력의 선험적 원리로 자연의 합목적성을 제시하고³⁾, 자연의 합목적성이 쾌의 감정과 결합되어 있는 까닭에, 이 원리는 쾌감을 통해 자연과 자유를 매개한다는 것을 설명한다.⁴⁾ 칸트는 합목적성의 원리가 감각적 쾌감에 근거하는 주관적 원리임과 동시에 선험적 원리임을 입증하는 것이 『판단력 비판』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힌 후, 제1편에서 미감적 판단력의 비판을 통해 이 과제를 해명하고자 한다.⁵⁾ <미 분석론>은 취미판단이 합목적적 쾌감을 규정근거로 삼는다는 전제 아래, 미적 쾌감이 보편타당성을 갖는다는 주장을 전면에서 내세워 논의를 이끌어간다. 그러나 이러한 맥락을 도외시한 채 <미 분석론>의 내부에서 제시되는 규정들에만 주목할 경우, ‘상상력과 지성의 유희’라는 쾌감의 선험적 근거가 합당한지를 가리는 것에 치중하여 취미판단의 선험적 원리를 밝히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도외시될 수 있다.

둘째, <미 분석론> 제3계기에서 칸트가 합목적성과 관련한 대상의 성질을 고찰하며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점이다. 칸트는 본격적으로 미적 합목적성을 설명하는 제3계기를 전반부(제10절~제12절)와 후반부(제13절~제17절)로 나누고, 전자에서 미의 원리를 설명한 후 후반부에서 미를 매력과 감동, 유용성 및 완전성과 구별한다. 칸트는 “아름다움은 대상의 합목적성의 형식(B61)”이라고 설명하며 제3계기를 마무리하는데, 제3계기의 구도를 이해하지 못한 채 이 규정에만 주목한다면 마치 칸트가 미의 원리를 대상의 속성으로서 설명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러

3) KU, V179-186.

4) KU, V187-188.

5) 칸트는 『판단력 비판』에서 미감적 판단력의 선험적 원리를 고찰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밝히며, 그의 미학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미 분석론>은 미적 쾌감의 보편적 전달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취미판단이 합목적성의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칸트의 주장을 염두에 둔다면, <미 분석론>은 쾌감에 근거하되 보편타당성을 지닌 선험적 원리인 ‘합목적성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대목이라는 것을 읽어낼 수 있다.

한 규정은 반성의 원리를 주관의 감정과 관련한 것이 아닌 대상의 객관적 형식, 혹은 그 형식을 포착하는 인식능력의 활동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여지를 제공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미적 합목적성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데에 머문다. 이들은 칸트미학을 비판철학의 맥락과 독립적으로 다룸에 따라 미적 합목적성을 1) 쾌감 및 자유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대상 자체의 속성으로 해석하려 하거나, 2) 이를 상상력과 지성의 자유로운 유희 등으로 제한하여 원리가 아닌 취미판단 안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표상으로 이해하는 데에 만족하였다. 기존 연구들의 입장을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누어 그 중심 주장을 살펴보자.

첫 번째로 ‘대상의 합목적성의 형식’이라는 규정을 대상의 객관적, 형식적 표상으로 오독하여 설명하는 입장이다. Crawford는 제3계기의 전반부에서 주어진 합목적성의 규정을 고려하지 못한 채 후반부의 규정에만 주목하여 대상의 합목적성의 형식을 미적 대상이 갖는 형식적, 구조적 특성으로 해석한다.⁶⁾ Crawford는 칸트가 제3계기의 후반부에서 취미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대상의 질료가 아닌 형식적 특성이라고 강조하는 것을 아름다움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으로 이해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아름다움 자체에 대한 설명이 아닐뿐더러, 칸트는 미적 대상이 특정한 구조나 형식을 갖는다고 제한하지 않는다. 칸트가 제3계기의 후반부에서 미적 대상의 형식을 논하는 까닭은 전반부에서 취미의 원리로서의 합목적성을 설명하고 후반부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대치되는 객관적 미론을 반박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Ameriks는 더욱 과격하게 칸트가 대상의 합목적성의 형식을 개별적 대상의 객관적 특징으로서 설명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⁷⁾ Ameriks가 주장하는바, 대상의 합목적성의 형식에 대한 칸트의 설명을 주관적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은 그 근거가 빈약하며, 칸트가 역설 없이 취미판단의 보편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합목적성의 형식을 대상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Ameriks의 주장과 같이 합목적성의 형식을 객관과 관련짓는 것은 칸트의 이론에서 주관성이 갖는 의미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해석이 된다. 미감적 판단력은 반성적 판단력의 일종으로서 객관을 이성의 자유와 연결하는 능력이므로, 여기서 주관적이라는 규정이 단순히 객관성의 부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이 가진 능력의 심층과 관계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미적 합목적성을 객관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표상과 주관적 차원에서

6) D.W. 크로포드, 김문환 역, 『칸트미학이론』 (서울: 서광사, 1995), 141-147쪽.

7) Karl Ameriks, "Kant and the Objectivity of Taste", *British Journal of Aesthetics* vol. 23 (1983), pp.3-17.

발생하는 표상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연구이다. Longuenesse는 대상의 합목적성의 형식을 지성과 상상력이 서로의 활동을 강화하는데 이로운 대상 자체의 형식적 특성으로 설명한다.⁸⁾ 그런데 그는 합목적성이 객관적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 차원으로 전환한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첫 번째 유형의 연구들보다 나아간 의견을 제시한다. Longuenesse는 미적 대상이 상상력과 지성의 합치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합목적적임과 동시에, 이러한 합치가 스스로의 즐거움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적 목적을 만족시킨다는 점에서 주관적으로도 합목적적이라고 설명한다. 즉 Longuenesse는 쾌감을 느끼는 것을 주관의 내적 목적과 연관시킴으로써 쾌감과 합목적성이 갖는 연관성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주관의 내적 목적을 자유와 연결시키지 못했다. 또한 그는 여전히 대상의 합목적성의 형식을 객관의 특성으로 설명하며, 주관적 합목적성이 미의 관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대상의 특정한 성질이 주관의 합목적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Wenzel은 형식적 측면에서 대상에게 귀속되는 합목적성과 인식능력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합목적성을 구분하고, 주관 안에서 상상력과 지성의 관계, 인식능력들과 쾌감의 관계가 모두 합목적적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였다.⁹⁾ 하지만 Wenzel은 다양한 층위의 합목적성을 하나의 원리로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Wenzel의 설명에 의하면 우리는 대상을 합목적성이라는 하나의 원리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대상이 어떤 측면에서 합목적적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에 만족할 뿐”이다. 그는 취미를 위한 원칙은 없으며, 주관적 합목적성은 원리가 아니라 단지 발생할 뿐인 것으로 하나의 규칙으로서 제시할 수 없다고 생각한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과연 취미판단이 완전히 무원칙적인 것인가’라는 의문을 남긴다. 취미판단에서 상상력과 지성이 ‘자유롭게’ 유희한다는 것은 지성의 규정적 법칙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이지 이것이 일절 무원칙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주관의 인식능력은 지성의 법칙으로부터 자유로운 와중에 합목적성이라는 고유한 원리를 표상한다. Wenzel이 합목적성을 하나의 선형적 원리로서 설명하지 못한 까닭은 그가 합목적성을 해석함에 있어 미적 쾌감과 자유라는 중요한 개념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Wenzel 자신도 자신의 연구에 덧붙여 “쾌감과 관련한 ‘내적 원인성’과 인식능력들의 ‘활성화’를 어떻게 해석해야만 하는가”라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밝힌다.

8) Béatrice Longuenesse, "Kant's leading thread in the analytic of the beautiful", Rebecca Kukla (ed.), *Aesthetics and Cognition in Kant's Critical Philosoph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p.209-213.

9) C.H.벤첼, 박배형 역, 『칸트미학』, (서울: 그린비, 2012), 228-248쪽.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한계를 갖는다. 첫째, 합목적성과 쾌감의 상관관계를 밝히지 못한다. 즉 미적 쾌감이 개념을 대신하여 판단의 결과로서 귀결할 뿐만 아니라 미적 쾌감의 성질 자체가 주관을 대상에 대한 반성으로 이끔으로써 대상의 합목적성의 판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밝히지 못한다.

둘째, 합목적성을 자유의 이념과 연결하지 못한다. 기존의 연구는 ‘상상력과 지성의 자유로운 유희’를 인식능력이 작동하는 한 방식으로 이해했을 뿐, 이 활동이 지성의 법칙 및 실천이성의 법칙으로부터 벗어난 정신적 자유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짚어내지 못한다. 그러나 미적 합목적성의 해석이 합목적성과 자유를 연결하지 못한다면, 이는 인식능력들의 활동을 설명하는 제2계기에 대한 분석과 구별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들은 주관의 자유가 아름다움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못하며 아름다움을 통한 자연과 자유의 매개의 가능성을 설명하지 못하는데, 이는 비판철학의 체계성뿐만 아니라 『판단력 비판』의 내적 정합성을 해친다.

셋째, 주관이 미적 쾌감으로 인해 새로운 종류의 자식의식에 도달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못한다. 칸트는 <미 분석론>에서 두 차례에 걸쳐 ‘무관심성의 의식’, ‘합목적성의 의식’을 언급하며 취미판단이 함유하는 의식을 강조하는데, 이는 취미판단이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주관에 대한 의식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 의식은 이성과 감성이 조화된 존재, 자유에 근거한 존재라는 한층 심화된 자기의식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취미판단이 무엇을 제공할 수 없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 뿐이며, 취미판단을 통해 주관이 스스로에 대한 새로운 의식을 획득한다는 사실에 접근하지 못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취미의 보편타당성을 설명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지만, 미의 판정을 가능하게 하는 고유한 원리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칸트가 제시하는 미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합목적성의 고유한 특성, 즉 주관적 합목적성이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쾌감과 관계하며, 그것이 근거한 판단이 어디에 귀결하는지를 밝혀야 한다. 그러지 못한다면 합목적성은 그와 마찬가지로 선형적 근거를 상상력과 지성의 활동에 두는 합법칙성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원리로서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미적 합목적성을 여타의 원리와 구분하는 쾌감의 성질에 주목하여 이것을 해석하는 것, 그리고 이 원리에 주어진 임무에 따라 미적 합목적성을 자유와 연결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문젯거리로 남아있다.

한편 이 글의 입장과 같이 미적 합목적성을 쾌감을 통해 자유로운 존재로서의 자기의식에 도달하는 원리로 해석하는 연구자 가운데 Allison을 주목한다.¹⁰⁾ Allison

10) Henry.E.Allison, Kant's Theory of Taste: A Reading of the Critique of Aesthetic

은 칸트가 제10절에서 쾌감을 감각적 상태라기보다 자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표상의 '원인성의 의식'으로 설명하는 것에 주목하고¹¹⁾, 미적 쾌감이 합목적성의 정서적 인지임을 주장한다. Allison은 감각적 상태로서 서술되는 쾌감에 대한 일반적 정의와 개념의 원인성과 관련한 쾌감의 정의를 연결하기 위해 미적 쾌감이 감각적 상태이지만 낱것의 감정과는 달리 표상과 관계된 자신의 상태에 대한 의식을 포함한다고 설명한다. Allison은 칸트의 이러한 설명이 자신의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쾌감의 성질을, 즉 쾌감의 의도성을 강조하고 위함이라고 밝힌다. 즉 Allison은 쾌감의 성질을 통해 자신의 인식능력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의식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Allison은 제10절을 해석함에 있어 근본적인 오류를 범한다. 그는 제3계기의 첫 문단에서 제시되는 “자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표상의 원인성의 의식(KU, B33)”이라는 일반적 쾌감의 규정을 미적 쾌감만의 고유한 성질인 것으로 보고, 반성적 판단력의 규정은 목적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정에서는 자신의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원인성이 개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두 규정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나 쾌감에 대한 이 설명은 자신의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성을 갖는 쾌감의 성질을 합목적성과 연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쾌감을 느끼는 모든 상황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편안한 소파에 누워있으면서 쾌적함을 느끼고 이 쾌적함이 소파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소파에 계속 **머물고자** 할 것이다. 즉 소파(소파와 결합된 감정)가 갖는 원인성을 의식하고 이에 머물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듯 Allison의 해석과 달리 모든 종류의 쾌감은 자신의 상태에 대한 의식 및 이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성을 내포한다. 일반적 쾌감과 미적 쾌감의 차이점은 **오직 미적 쾌감만이 자유에 대한 의식을 함유한다는 점**인데, 이는 취미판단이 미감적 판단임과 동시에 반성판단이기 때문이다. Allison은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였고 이에 따라 칸트가 합목적성 및 쾌감을 반성적 판단력의 규정과 연결하는 구절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였으며, 미적 쾌감이 함유하는 의식을 반성적 의식이 아닌 단순한 자기의 상태에 대한 의식으로 축소하였다.

Allison의 이러한 오류는 제10절에서 제시되는 합목적성의 기본 규정들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한 데에서 출발한다. 칸트는 제10절의 첫 번째 문단에서 일반적 합목적성의 규정을 제시하고 이를 쾌감과 연결하고, 두 번째 문단에서 이 쾌감에 의해 형식적 합목적성이 가능함을 설명한다. Allison의 해석의 오류를 바로잡고 그가

Judgmen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pp.119-131.

11) 칸트는 제3계기의 제10절 첫 문단에서 합목적성을 개념이 갖는 원인성으로서 설명하고, 이러한 원인성의 의식을 쾌감으로 규정한다. KU, B33.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10절의 규정을 빈틈없이 살피고, 이에 기반을 두어 제3계기를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Allison의 설명은 칸트가 취미판단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는 바에 한층 더 다가갔지만, 미적 합목적성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Allison이 주장하는 바보다 한층 더 적극적인 해석을 필요로 한다. 말하자면 미적 합목적성은 단순히 기존의 사유방식을 바탕으로 합목적적 표상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칙적 사유에서 합목적적 사유로 사유의 방향 자체를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반성적 판단력의 규정을 도외시한 Allison의 해석에서 더 나아가, 비판철학의 맥락에서 제시되는 반성적 판단력의 규정을 바탕으로 합목적적 사유가 기존의 사유방식과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지적한 후에, 합목적성이 어떻게 미적 쾌감과 연결되는지, 그리고 아름다움을 통해 어떻게 자기의식에 도달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칸트의 미학에서 합목적성을, 합목적성에서 미적 쾌감을, 그리고 미적 쾌감에서 자기의식을 더욱 적극적으로 꺼내야 하는 것이다.

이 글은 자신의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리고 이를 통해 자유의 의식에 도달하고자 하는 미적 쾌감의 의도성에 주목하여 미적 합목적성을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인 입장으로 취하면서, Allison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에 주목하여 미적 합목적성을 해석한다. **첫째**, 칸트의 합목적성은 결과로부터 그것의 원인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반성적 사유방식을 요구하는데, 그 과정에는 쾌감의 개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둘째**, 주관은 외부에서 무규정적 쾌감의 원인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쾌감의 원인을 찾는 데에 자신의 내부로 방향을 돌리며, 미적 쾌감의 원인에 자유라는 주관의 목적이 자리함을 의식한다. **셋째**, 자유로운 상태에 머물고자 하는 쾌감의 의도성에 의해 주관은 미적 대상을 반성하고 관조하고 음미하며, 이를 통해 주관은 자유로운 이성적 존재로서 자기의식을 획득한다.

이 글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전개된다. **제2장**에서는 합목적성이 비판철학에서 요청된 배경을 확인함으로써 이 원리에 주어진 외적 규정을, 즉 이것이 어떤 원리이어야 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1.에서는 자연과 자유의 매개라는 합목적성의 과제에 초점을 두어 이성비판의 의미를 개괄한다. 먼저 이성비판이 인간 이성의 본질을 규명하고 이성적 인간이 지향해야 할 바를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짐을 설명한다. 이어 이론이성과 실천이성의 분리에 의해 이 두 능력이 각각 자신의 영역을 완성하는 데에 한계를 갖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두 영역의 매개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2.2.에서는 칸트가 『판단력 비판』의 서문에서 설명하는 것을 바탕으로 반성적 판단력이 요청된 근거를 확인하고, 반성적 판단력의 원리인 합목적성에게는 쾌감에 근거하여 자연과 자유를 매개해야 하는 임무가 주어졌음을 밝힌다. 2.3.에서는 자연의 합목적성의 규정을 확인하고자 하는바, 합목적성이

객관적 목적이 아닌 자연을 이해하고자 하는 주관의 목적과 관련하며, 주관의 쾌감에 근거하는 점에서 주관적 원리라는 것을 밝히고 이에 따라 이 원리의 선험적 타당성에 대한 증명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2.4.에서는 자연의 합목적성의 두 종류를 설명하고, 취미판단의 원리인 미적 합목적성이 합목적성 원리 일반에 대한 선험적 타당성을 입증한다는 것을 보인다.

제3장에서는 쾌감의 성질에 근거한 형식적 합목적성이 가능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3.1.에서는 먼저 쾌감 자체의 성질에서 합목적성과의 연결을 위한 근거를 발견한다. 이를 위해 『실용적 관점에서 본 인간학』에서 서술되는 쾌감의 일반적 정의를 확인하고, 쾌감을 느끼는 것이 그 자체로 주관의 내적 목적의 달성이라는 면에서 합목적성과 관계한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여기에서 확인한 바를 바탕으로 3.2.에서는 칸트가 제3계기의 제10절에서 제시하는 형식적 합목적성의 규정을 분석한다. 여기에서는 칸트가 합목적성의 일반적 규정을 제시한 후, 쾌감을 합목적성과 연결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쾌감에 의해 대상이 목적의 전제 없이 형식적으로 합목적적인 것으로 판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제3계기에서 제시되는 규정을 바탕으로 미적 합목적성을 면밀히 분석하고자 한다. 4.1.에서는 취미판단이 형식적 합목적성에 기초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주관의 선험적 합목적성이 미적 대상의 형식적 합목적성의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여기에서 설명하고자 하는바, 미적 대상의 형식적 합목적성은 쾌감에 근거하여 알려지며, 주관은 반성을 통해 이 무규정적 쾌감에 대한 원인성을 상정한다. 주관은 미적 대상이 주관의 인식능력을 자유로운 유희의 상태로 규정하며, 이 유희의 활동에 의해 쾌감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식하고, 1) 주관의 인식능력 자체와 2) 인식능력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가능하게 한 미적 대상을 합목적적으로 판정한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4.2.에서는 칸트가 미를 매력과 감동, 완전성 및 유용성과 구별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합목적성이 대상의 객관적 성질로 귀속될 수 없음을 설명한다. 4.3.에서는 주관의 합목적성에서 쾌감이 수행하는 역할을 정리하고, 이 원리가 자연과 자유의 매개라는 비판철학의 과제를 자연의 대상으로부터 주관의 자유를 발견하는 방식으로 달성한다는 점에서 비판철학 안에서의 의의를 지님을 설명한다.

칸트 미학의 의의는 감성의 능력 자체가 지니는 보편타당성을 보여주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 그리고 감성적인 것과 초감성적인 것을 주관 안에서 조화하고 매개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사실은 오직 쾌감과 합목적성 연관성에 주목하여 미적 합목적성을 정확하게 규명함으로써 밝혀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합목적성이 요청된 배경에 근거하여 주관의 합목적성을 분석하는 것은

아름다움을 관정한다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 스스로를 자유로운 이성적 존재로서 재
인식하게 한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2. 반성적 판단력과 합목적성의 요청

제2장은 합목적성이 비판철학에서 요청된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합목적성에 주어진 임무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서는 자연과 자유의 두 영역을 매개하기 위해 반성적 판단력이 요청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반성적 판단력의 원리인 합목적성에는 쾌감을 통해 자연에서 자유를 발견해야 하는 임무가 주어짐을 밝힌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 글의 골격이 되는 기본 개념들, 즉 목적, 합목적성, 반성, 의도성, 자유 등의 정의가 제공될 것이다.

2.1.에서는 합목적성이 제시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자연과 자유의 매개라는 과제에 초점을 두어 칸트의 비판철학을 개괄하고자 한다. 비판철학은 인간이성의 본질을 규명하여 이성적 존재로서 인간이 지향해야 할 바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목적을 위해 칸트는 인간이성을 이론이성과 실천이성으로 나누고 그 가능성과 한계를 규정한다. 그러나 이론이성과 실천이성의 원리가 분리됨에 따라 자연과 자유는 각각의 영역을 완성하는 것에 한계를 마주하며, 이에 따라 비판철학에는 제3의 능력을 통해 자연과 자유를 매개할 것이 요청된다. 2.2.에서는 칸트가 『판단력 비판』의 서문에서 설명하는 것을 바탕으로 반성적 판단력이 요청된 근거를 확인하고, 규정적 판단력과 구별되는 반성적 판단력의 특징을 살펴본다. 2.2.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먼저 『판단력 비판』의 서문에 근거하여 반성적 판단력이 요청되는 까닭을 정리한 후, 반성적 판단력이 1) 자연의 대상과 자유의 이념을 연결하는 능력이며 2) 다른 상위인식능력들과 달리 관찰구역을 갖지 않는 까닭에, 이 원리의 선형성에 대한 증명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된다는 사실을 밝힌다. 2.3.에서는 합목적성이 자연을 이해하고자 하는 주관의 목적 및 주관의 쾌감에 근거하는 주관적 원리라는 점에서 이 원리의 선형적 타당성에 대한 증명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2.1. 이성비판의 과제: 자연과 자유의 매개

일반적으로 칸트의 비판철학은 엄밀한 보편성에 근거한 ‘학’으로서의 형이상학을 정초하는 데에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칸트는 이 보편성의 조건들을 대상 자체가 아닌 주관 인식능력의 선형적 구조에서 찾고자 했으며, 이에 따라 이성비판은 인간의 인식능력에 대한 고찰로 이어진다. 이 글은 비판철학이 단순히 형이상학을 위한 예비적 연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을 고찰하기 위한 연구라는 입장을

견지한다. 이에 따라 이 글은 칸트가 인간을 스스로의 자유를 실현하는 주체로 규정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세 능력¹²⁾의 가능성과 한계를 비판철학을 통해 고찰하고자 했다는 입장을 전제한다.¹³⁾ 칸트는 인간이 물리적 세계에 속한 유한한 존재이자 자연의 합법칙성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사유하고 행위할 수 있는 이성적 능력을 가진 양면적 존재임에 주목한다. 칸트는 이성이 인간을 자연의 다른 존재자와 구별하는 것으로 보고, 이성으로 함축된 인간의 본질을 비판을 통해 규명하고, 나아가 이성적 존재로서 인간이 지향해야 할 바를 제시하고자 했다.

칸트에게 이성이란 1) 마음의 각기 다른 관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마음의 능력들에 원리를 부여하여 이를 실현케 하는 상위능력이자, 2) 감성적 능력의 수동성과 대비되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정신적 능력, 넓은 의미에서의 인식능력이다.¹⁴⁾ 이성적 존재로서 인간은 두 가지 관심을 갖는다. 첫 번째 관심은 자신이 속한 세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관심이며, 이 관심에 대하여 이성은 합법칙성의 원리에 따라 '이론이성'¹⁵⁾으로서 기능한다. 두 번째 관심은 스스로의 자유에 근거하여 실천하고자 하는 관심이다. 이러한 관심에 대하여 이성은 궁극목적의 원리에 따라 '실천이성'으로서 기능하며, 실천이성을 통해 주관은 도덕법칙으로 주어지는 자유를 자연 안에서 실천한다.

12) 칸트는 인간능력의 최소단위를 그것이 갖는 관심에 따라 인식능력, 쾌·불쾌의 감정, 욕구능력의 세 가지로 나누고, 이 능력들에 선형적 원리를 부여하는 이성의 기능으로 각각 지성, 판단력, 실천이성을 제시한다. 인식능력, 쾌·불쾌의 감정, 욕구능력은 이성에 의해 규정되는 한에서 하위인식능력으로 불리며, 지성, 판단력, 실천이성은 하위인식능력에 원리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상위인식능력이라 불린다. 칸트의 이성비판은 이성의 세 가지 상위인식능력의 가능성과 한계를 설정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

13) 칸트가 직접 언급하는 이성비판의 목적은 수학, 물리학과 같이 엄밀한 '학'으로 형이상학을 정초하는 데에 있다. 학문이 필요로 하는 인식의 타당성은 경험적 법칙이 가진 타당성으로는 충분치 않고, 오직 선형적 법칙들만이 인식에 대한 필연성과 엄밀한 보편성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따라서 형이상학은 이성의 다른 이론적 학문들과 마찬가지로 선형적 종합 판단들을 원리로 삼아야 한다. 칸트에 있어 형이상학의 가능성과 그 전제조건에 대한 탐구는 선형성에 근거를 둔 인식의 확장, 즉 '선형적 종합 판단의 가능성'에 대한 탐구 안에 집약된다. 그런데 칸트는 이 가능성을 위한 조건들을 대상이 아닌 인간의 인식능력에서 찾고자 했다. 즉, 인간의 인식 능력 속에서 근거 지워지는 조건들의 연구를 통해 형이상학의 가능성을 확립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이성비판은 결국 '인간 인식 능력'에 대한 연구로 이어진다. KrV, B303.

14) KpV, A216.

15) '이론이성'이란 자연을 인식하고자 하는 관심에 따라 이론적으로 사용되는 이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인식능력으로서 지성의 합법칙성을 포괄하며, 이성의 실천적 사용인 '실천이성'과 대비하여 사용된다. 일반적 지성은 규칙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사용하는 능력인 반면, 이론이성은 규칙들을 추상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으로서 형이상학은 오직 이론이성에만 관계한다. Prol. VI 370.

칸트는 세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주관의 능력, 즉 **이론이성**을 그의 첫 번째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다. 칸트는 인간이 세계에 대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영역을 **현상으로서의 자연**으로 한정하며, 자연의 인식에 관해서는 **지성**에 일임한다. 지성은 물리적 질료들에 **인과법칙**을 부여하여 자연이라는 합리적인 세계를 표상하며, 이 세계는 인간에게 경험이 가능한 영역을 제공한다. 그러나 인간은 자연의 물리적 현상을 인식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물음을 끊임없이 제기한다. “과연 자연을 최초로 만든 것은 무엇일까? 이 세계 자체를 가능하게 한 최초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러한 것을 창조한 신이 존재하는 것일까? 우리의 영혼은 신과 같이 불멸인 것인가?16)”

자연 안에서 모든 사물들이 지성의 인과법칙에 따라 필연적으로 그에 대한 원인을 갖는다면 우리는 하나의 대상에 대한 원인을 발견할 수는 있어도 자연의 최초의 원인까지 발견할 수는 없는데, 자연 안에서 하나의 사건은 그 원인으로, 또 그 원인은 원인에 대한 원인으로 무한히 소급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자연은 그 자체로 내적 완결성을 갖지 못하며, 자연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불완전한 채로 남게 된다. 칸트는 자연이라는 시작도 끝도 없는 불완전한 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자연의 체계를 가능하게 한 최초의 원인으로서는 자유를 요청한다. 여기에서의 자유란 초월적 의미에서의 **자유**로서, 이것은 “현상 계열을 단적으로 시작하는 원인들의 절대적 자발성(KdrV B476)”로 규정된다. 즉 자유는 자연의 계열을 시작하는 최초의 원인이자, 어떠한 원인도 갖지 않는, 즉 **자연의 인과법칙으로부터 독립적인 것이다**. 지성이 자신의 법칙에 따라 자연의 계열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법칙으로부터 독립적인 자유라는 개념을 반드시 필요로 하며, 이 자유를 통해 자연은 비로소 하나의 세계로 완결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자유 개념은 지성의 법칙으로부터 독립적인 까닭에 지성에 의해서는 객관적 실재성을 부여받을 수 없다. 칸트는 자유를 단순히 인식능력의 한계 밖으로 남겨놓을 수 없는데, 만일 자유가 실재성 없는 가상으로 남게 된다면 자연 체계의 완성을 위한 자유의 요청은 그 타당성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초감성적인 영역을 향한 이성의 물음들 또한 해명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유에 근거하는 이성의 물

16) 칸트에 의하면 이러한 물음들은 이성의 본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는 인간 이성의 자발성이 물질세계에 대한 인식에 그치지 않고 감성적인 것을 넘어 초감성적인 것으로 계속 나아가고자 하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다. 형이상학 또한 이러한 질문의 영역에 속한다. “인간이 스스로의 필요에 이끌려 이성의 어떠한 경험 사용이나 그로부터 얻은 원리들에 의거해 답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에까지도 멈춤 없이 나아가고, 그래서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이성이 이론활동에 이를 정도로 성장하자마자, 어떤 형이상학이 됐든 어느 시대에나 있었고 또한 항상 거기에 머무를 것이기 때문이다(KU, (B20))”.

음들이 한낱 지성이 만들어낸 공상에 머물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유에 객관적 실재성을 부여하는 또 다른 능력의 요청이 필연적인 일이었다. 칸트는 자유에 실재성을 부여하는 능력인 실천이성을 제시하는바, 이 능력은 지성에 이어 두 번째 비판의 대상이 된다.

제2비판은 자유를 인식하는 주관의 능력, 즉 **실천이성**에 관한 비판이다. 실천이성은 자연이 인과법칙으로부터 독립적인 하나의 원인에 의해 가능하다면, 주관 또한 자연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단적으로 하나의 사건을 시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한다. 즉 우리가 자연법칙에 종속되어 행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자유에 근거하여 행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 안에서 완전 무규정적인 이 자유를 어떻게 인식하고 행해야 하는가? 실천이성은 자유를 도덕법칙의 형태로 인식하고, 이에 맞춰 우리의 의지를 규정하고 실행한다. 칸트는 인간이 도덕법칙의 실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최후의 목적으로서 ‘최고선’을 제시한다. 최고선이란 도덕법칙에 합치된 행위에 대해 행복이 수반하는 것으로, 그 아래에서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목적에 근거하여 사유하고 실행하는 주체가 된다.¹⁷⁾

그런데 도덕법칙의 실행 역시 인간의 다른 모든 행위와 마찬가지로 자연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자연 안에서 자유를 발견할 수 없으며**, 자유에 근거하지 않은 도덕법칙의 인식이란 단순한 당위에 지나지 않다는 문제에 직면한다. 이는 오히려 자유라기보다 명령에 가깝다. 이러한 명령들은 자연 안에서의 다양한 상황에서 서로 상충한다.¹⁸⁾ 이에 따라 진정한 자유의 실현을 위해서는 자연에서 자유를 발견할 수 있는 제3의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 요구된다.

칸트는 이론이성과 실천이성의 매개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그 근거로 이 두 능력이 각기 다른 두 종류의 이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만일 순수이성이 독자적으로 실천적일 수 있고, 도덕법칙에 대한 의식이

17) 행위를 통한 도덕법칙의 실현은 감성계, 즉 자연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바, 이 또한 하나의 원인이 되어 다음의 행위를 낳게 된다. 하나의 행위에서 도덕법칙은 의지의 목적이 되지만, 이 행위는 또 다른 도덕법칙에 의한 목적의 수단이 된다. 따라서 우리의 의지에는 그 어떤 것의 수단도 될 수 없는 최후의 목적, 즉 궁극목적이 주어져야 한다. 만일 어떠한 궁극적인 목적의 표상 없이 도덕법칙에 의한 행위의 연쇄가 계속된다면, 비록 그것이 스스로의 자유에 의한 행위일지라도, 단지 또 다른 하나의 법칙에 종속된 삶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18) 예컨대 우리가 빨간 불에서는 길을 건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자. 만일 빨간 불이 켜진 도로 한복판에서 아이가 울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주관에게는 빨간 불이기 때문에 건너지 말아야 한다는 당위와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가 서로 상충될 것이다. 자연 안에서의 도덕적 상황에서는 무조건적인 실천이 아닌 상황에 대한 반성을 필요로 하며, 이에 따른 실천만이 진정한 자유의 실천이 될 수 있다.

입증하듯이, 실제로 그러하다면, 이론적 의도에서건 실천적 의도에서건 선험적 원리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언제나 오로지 동일한 이성일 뿐이다.
(KpV, A218)

지성과 실천이성은 이론적 관심과 실천적 관심에 의해 각기 다른 원리로 기능하는 하나의 이성이다. 만일 이론이성과 실천이성이 각각 다른 종류의 능력일 경우, 이 두 가지 능력은 각각의 활동에 있어 서로의 원리에 모순되지만 않는다면 자신의 활동들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될 것은 없다. 그러나 인간은 개별적 부품들의 총합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유기체이다.** 이론이성과 실천이성의 분리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이성이 하나의 완결된 유기체로 기능하지 못하고 한편으로는 현상계의 원인성에, 다른 한편으로는 당위들의 연속에 종속된 채로 분열된 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성의 본질을 규명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유한성과 무한성을 동시에 가진 인간이 과연 자유에 근거한 존재인가, 만일 그렇다면 인간은 자신의 자유를 어떻게 스스로의 삶 속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우리의 이성은 이론적 관심과 실천적 관심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심들을 조율하고, 각각의 관심이 표상하는 다른 두 세계를 조화시켜야 할 의무를 지닌다. 그래야만 비로소 인간은 자연의 다른 존재들과 달리 자유롭게 사유하고 행위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성 비판은 이성의 활동들을 규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그 활동들을 하나의 이성으로 통일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며, 이를 통해서만 이성은 비로소 완성된 하나의 인격을 표상할 수 있게 된다.

2.2. 반성적 판단력의 요청

칸트는 『판단력 비판』의 서문에서 이론이성과 실천이성에 대해 개괄하며, 지성과 실천이성이 각자의 선험적 원리를 입법하는 두 관할구역¹⁹⁾, 즉 자연개념들의 구역과 자유개념들의 구역을 표상한다고 말한다.

자연개념들에 의한 법칙수립은 지성에 의해 일어나며, 이론적이다. 자유개념에 의한 법칙수립은 이성으로부터 일어나며, 순전히 실천적이다. ... 그리

19) 관할구역이란 특정한 인식능력이 유효한 범위에 대해 권한을 가진 개념들의 영역을 말한다. KU, V175.

므로 지성과 이성은 한쪽이 다른 쪽에 해를 입힐 필요 없이, 경험이라는 동일한 지반 위에서 서로 다른 법칙을 수립한다. 왜냐하면 자연개념이 자유개념에 의한 법칙수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듯이, 자유개념 또한 자연의 법칙수립을 조금도 방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V175)

과연 자유개념은 그 발생 자체가 자연개념의 반대의 향으로서 도출된 개념이기 때문에, 자연개념의 구역과 자유개념의 구역은 공통구역 없이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 놓여있게 된다. 그럼에도 자연에서 자연과 자유의 두 원리는 서로 위배되지 않고 존재하는데, 우리의 경험에 있어서는 지성의 원리는 오직 자연의 인식에 관여하며, 실천이성의 원리는 오직 자유의 실천에 관여하기 때문이다. 두 원리들은 제각각 고유하게 작동할 뿐, 서로를 제한하지 않는다.²⁰⁾

그러나 자연과 자유의 분리는 제3의 능력을 통해 이 두 영역을 매개할 것을 요구하는데, 그 까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과 자유가 분리되어 있을 때, 지성과 실천이성은 각각의 체계를 완성시키는 데에 한계를 갖는다. 지성은 자연체계의 완성을 위해 자유를 요청하였으나, 자연과 자유의 분리에 의해 자유에 근거한 자연체계는 여전히 완성되지 못한 채로 남아있다. 자연과 자유의 분리 안에서 자연은 불완전한 것으로 남을 뿐만 아니라, 자유의 요청에 대한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실천이성 또한 자신의 원리만으로는 진정한 자유를 실행할 수 없다. 실천이성은 자유에 근거하여 도덕법칙을 입법하지만, 자연과 자유 분리 안에서 인간은 자유에 다가가지 못하는 감성적 존재인바, 이러한 인간에게 도덕법칙은 자유의 법칙이 아닌 의무이자 당위의 법칙으로 다가온다. 만일 자연과 자유가 분리된 채로 남는다면, 실천이성의 원리는 진정한 자유를 실현하는 원리가 아니라 의무적이고 기계적인 법칙이 되어버린다. 인간이 자연의 체계를 완성하고 이 완전한 자연 안에서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연 안에서, 자기 자신 안에서 자유를 발견할 수 있는 제3의 능력을 필요로 한다.

둘째, 분리된 원리들을 통해서만 세계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킬 수 없다. 지성의 원리는 오직 현상에 관해서만 유효한 반면, 실천이성의 원리는 자유에 닿아있지만 그것을 직관으로 현상할 수 없다. 서로 다른 한계를 가진 두 원리는 조화점을 갖지 못함에 따라 우리의 인식은 오직 자연 안에 머물 뿐 자유를 비롯한 초감성적인 것에 확장되지 못하며, 감성적인 것을 넘어 초감성적인 것에 다가가고자 하는 이성의 욕구는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게 된다.

20) 칸트는 이 두 원리가 인간의 경험에서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순수이성 비판』의 초월적 변증학에서 증명하였다. KrV, B560-586.

자연개념은 그의 대상들을 직관에서 표상화하기는 하지만, 사물들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순전한 현상들로서 하는 반면에, 자유개념은 그 객관에서 사물 그 자체를 표상화하지만 직관에서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둘 중 어느 것도 그의 대상을 (그리고 사고하는 주관조차도) 사물 그 자체로 인식할 수가 없는 것이다. (V176)

이에 따라 인간에게는 지성과 실천이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식의 영역을 초감성적 영역에까지 넓히기 위해, 자연과 자유를 연결하고자 하는 세 번째 관심이 발생한다. 이 세 번째 관심에 원리를 부여하여 충족시키기 위해, 즉 자연과 자유의 연결을 위해 칸트는 지성 및 실천이성에 이어 이성의 세 번째 능력인 판단력을 요청한다.

칸트는 『판단력 비판』의 서문에서 “철학의 두 부분을 하나의 전체로 결합하는 수단(V177)”으로 판단력을 제시한다. 판단력은 이미 『순수이성 비판』 원칙의 분석학에서 지성 및 이성과 함께 상위인식능력의 하나로서 제시된 바 있다.²¹⁾ 여기서 지성이 규칙들의 능력으로 제시된 데에 반해 판단력은 이러한 규칙들 아래에 무엇인가를 포섭하는 능력, 다시 말해 무엇인가가 주어진 규칙 아래에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능력으로서 주어졌다. 칸트는 『판단력 비판』에서 판단력 일반을 “특수한 것을 보편적인 것 아래에 함유된 것으로 사고하는 능력(V180)”으로 재규정하고 이를 다시 규정적 판단력과 반성적 판단력으로 구분한다. 규정적 판단력이란 보편적인 것이 주어질 때 특수한 것을 그 아래로 포섭하는 능력이며, 이 규정은 인식판단의 일종으로 칸트가 앞서 순수이성비판에서 언급한 판단력의 규정과 일치한다. 반면 반성적 판단력은 “특수한 것만이 주어질 때, 특수에 대한 보편적인 것을 발견하는 능력(V180)”이다. 즉 이것은 특수한 것에 마주하여 이에 해당하는 보편을 찾아 반성해나가는 능력을 말한다. 이중 칸트가 자연과 자유를 매개하는 능력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후자, 즉 반성적 판단력으로, 세 번째 비판의 대상은 오직 이것에 한정된다.

그렇다면 규정적 판단 및 인식판단(이론적 인식, 실천적 인식 모두)과 구별되는 반성적 판단의 특성은 어떻게 규정될 수 있을까? 칸트는 제1서문에서 반성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반성한다는 것은 주어진 표상들을 그 표상을 가능하게 하는 개념과 관련

21) KrV, B170.

해서 다른 표상들과 또는 자기의 인식능력과 비교하고 대조하는 것이다.
(KU, XX211, 역자강조)

반성한다는 것은 **대상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원인으로서는 개념**을 찾기 위해 대상을 다른 표상들 혹은 자신의 인식능력과 비교하는 것이다. 이를 반성적 판단력의 규정과 연결하여 설명하면, 반성적 판단력이란 한 특수한 대상을 **그것을 가능하게 한 원인으로서는 보편적 개념**(혹은 인식능력)과 연결하여 사유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반성적 판단력의 이러한 규정을 다음의 두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반성적 판단력을 통해 사유방식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반성적 판단은 원인에서 결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서 원인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회귀적 판단**이다. 반성적 판단력의 특징으로는 주어진 개념과 대상을 연결하는 규정적 판단력과 달리 ‘주어지지 않은 개념’과 대상을 연결한다는 점이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반성적 판단력은 단순히 제시되지 않은 개념을 찾는 능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인과적 사유방식을 전환시키는 능력이다. 반성이라는 의미가 나타내듯, 반성은 사고방향의 굴절을 의미한다. 반성은 시간의 형식에 근거한 원인-결과의 순차적 인식에서 방향을 바꾸어 결과로부터 원인을 탐색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반성적 판단력은 단순 무규정적인 보편적 개념을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가능성을 함유한, 즉 **대상의 원인으로서는 개념**을 탐색하는 능력이다. 즉 대상 자체를 결과로 보고 이에 대한 원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원인-결과에 따른 인과적 사유방식으로부터 결과-원인으로 회귀하는 반성적 사유방식으로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설명은 칸트가 <미 분석론>에서 미적 합목적성의 규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가장 상세히 드러난다. 칸트는 취미판단이 인과법칙과 관련한 판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취미판단을 원인과 결과의 측면에서 고찰하며 취미판단이 기존의 인과적 인식과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한다. 이에 대해서는 제3장에서 더욱 자세하게 고찰하고자 한다.

둘째, 반성적 판단력이 탐색하는 원인은 인과법칙의 무수한 연쇄 사이에 들어있는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대상의 발생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궁극적 원인이다. 즉 이 원인은 닭이 알을 낳고 알이 닭이 되는 끊임없는 연쇄 중 닭이거나 알이거나 하는 하나의 원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닭과 알이라는 체계 자체를 **가능하게 한** 가장 궁극적인 원인을 말한다. 이러한 궁극적인 원인은 더 이상 자연 안의 한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의 **가능성**으로서의 원인이다. 반성적 판단력은 대상을 자연의 다른 특수한 대상(혹은 개념)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모든 것들의 가능성을 함유하는 가장 **궁극적인 개념**과 비교한다는 점에서 규정적 판단력 혹은 인

식판단과 구분된다.

반성적 판단력이 자연과 자유의 매개를 위해 요청된 것이라는 점에서, 이 궁극적 개념이란 곧 자유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즉 반성적 판단력이란 자연의 특수한 대상 혹은 체계가 자유라는 원인에 의한 것으로 사고하는 능력이다. 칸트는 자연 체계의 완성을 위해 자연의 계열을 단적으로 시작하는 자유를 요청하였으니, 자연의 대상에 대한 반성을 통해 자유를 발견할 수 있다면 자연과 자유 사이의 단절을 매개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반성적 판단력은 지성 및 실천이성과 구별되는 또 하나의 특징을 갖는데, 이는 반성적 판단력이 그에 해당하는 관할구역을 표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성적 판단력이 대상을 다른 객관적 대상이나 개념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의 이념인 자유와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가능한 어떤 영역도 표상할 수 없다. 이 점에서 판단력의 비판은 이론철학 및 실천철학과 함께 교설로서의 철학 체계의 일부로 이어지지 못하며²²⁾, 반성적 판단력은 다른 두 상위인식능력과 다른 특수한 지위를 부여받는다.²³⁾ 앞서 비판된 두 능력이 각각 지성 및 이성으로서 독립적 기능으로 규정된 데에 반해 판단력은 오히려 “인식능력들이 맺고 있는 특정한 상태”로서 규정된다. 이 상태는 미감적 판단력에서는 상상력과 지성의 관계이기도 하며, 자연목적론적 판단력에서는 지성과 이성의 관계이기도 하다.²⁴⁾

그렇다면 독립적인 능력도 아니며, 대상에 대한 인식의 객관성도 보증할 수 없는 이 능력이 어떻게 상위인식능력으로 규정될 수 있으며, 또 어떻게 자연과 자유의 매개에 대한 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일까? 이는 반성적 판단력이 ‘합목적성’이라는 **선형적 원리**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22) XX222-226. 그러나 이성 비판의 기획은 순수 지성, 순수 판단력, 순수 이성의 세 가지 비판을 통해 비로소 완성될 수 있는데, 판단력의 비판이 이론철학과 실천철학을 매개하여 이들을 하나의 체계로서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V179.

23) 들뢰즈는 ‘판단력이 과연 능력인가?’라고 물으며 칸트가 판단력을 하나의 고유한 능력으로서 말하는 것은 그 활동의 고유성 및 산물의 특수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판단력은 특정한 영역이나 대상을 규정할 수는 없고 단지 인식능력간의 일치를 규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능력들의 자유로운 일치 속에서 판단력은 자신의 고유한 원리를 드러내며 이 원리의 환원불가능성으로 인해 판단력은 하나의 고유한 능력으로서 규정될 수 있다고 밝힌다. 질 들뢰즈 저, 서동욱 역, 『칸트의 비판철학』, (서울: 민음사, 2006), pp.110-114.

24) 양자의 관계에서 인식능력들은 서로 상반되는 특성을 갖는 동시에 서로가 서로를 가능하게 하는 합목적적 관계이다. 즉 칸트가 규정하는 판단력은 서로 다른 원리를 가진 두 능력이 합목적적으로 합치하는 특정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우리 인식능력의 순서에서 지성과 이성 사이의 중간항을 이루는 **판단력**도 독자적으로 선험적 원리들을 가지는가, 이 원리들은 구성적인가 아니면 한낱 규제적인 것인가(즉 그러므로 어떤 고유한 구역도 증명하지 못하는가), 그리고 판단력이 인식능력과 욕구능력 사이의 중간항으로서의 **쾌·불쾌**의 감정에게(지성이 인식능력에게, 이성이 욕구능력에게 선험적으로 법칙들을 지시규정하는 것과 똑같이) 선험적으로 규칙을 주는가, 이것이 지금의 이 판단력 비판이 다루는 문제이다. (V168)

반성적 판단력을 통해 주관은 자연의 대상과 자유의 부합을 객관적 개념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쾌감을 통해 느낄 수 있다. 그런데 객관적 개념이 아닌 주관적 감정에 근거한 이러한 판단이 과연 경험적 타당성을 넘어선 보편성을 주장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가? 이제 판단력의 비판에는 ‘특수한 것을 쾌감에 근거하여 자유와 연결하는 한 판단이 과연 선험적인 원리에 근거한 것인가?’를 규명해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즉 합목적성의 **선험적 타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져야 판단력은 상위 인식능력으로서 자연과 자유의 매개에 대한 정당성을 확인받고, 비판철학의 체계를 완성할 수 있는 것이다.

2.3. 판단력의 선험적 원리 : 합목적성

비록 자신의 고유한 관할구역을 갖지 않을지라도 판단력은 선험적인 원리와 그것이 적용되는 특정한 기반을 갖는다. 이 사실에 대해 칸트는 두 가지의 근거를 제시한다. 첫 번째 근거는 ‘인식능력’과 관계된 것으로, 판단력이 상위 인식능력의 가족으로서 또 다른 상위 인식능력인 지성과 실천이성의 중간에 위치하여 이들을 매개한다는 것이다²⁵⁾. 상위인식능력은 활동의 자발성과 능동성을 특징으로 하며, 고유한 원리를 통해 마음의 능력들에 법칙을 부여한다. 따라서 칸트는 판단력이 비록 고유한 영역을 표상하지 않지만, “법칙들을 찾는 자기 자신의 원리를 선험적으로 자기 안에 함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유비에 의하여 추측할 수 있다(V178)”고 말한다.

두 번째는 ‘마음의 능력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인간 마음의 모든 능력들을 더 이상 환원될 수 없는 세 가지의 뿌리로 나누어지는데, 이는 각각 **인식능력**, **쾌·불쾌의 능력**, **욕구능력**으로, 이들은 각각 일정한 원리를 가진 상위 인식능력에

25) V177.

의해 규정된다. 인식능력은 자연을 이론적으로 인식하는 것에 한해서 지성에 의해 입법되며, 욕구능력은 실천이성만이 선형적으로 법칙수립적이다. 그런데 지성과 실천이성 사이에 판단력이 포함되어 있듯이, “인식능력과 욕구능력 사이에 쾌·불쾌의 감정이 포함되어 있다(V179).” 따라서 칸트는 판단력 또한 독자적으로 선형적인 원리를 함유한다는 것을 유비에 의해 추측할 수 있다고 말한다. 즉 지성과 실천이성이 각각 인식능력과 욕구능력에 선형적인 원리를 부여하듯이 이 마음의 능력들 사이에 위치하는 쾌·불쾌의 감정 또한 판단력에 의해 선형적 원리로 규정된다는 것이다.

칸트는 “마음의 능력과 관련한 두 번째 근거가 훨씬 더 중요하다(V179)”고 말하며 이를 강조한다. 그 까닭은 마음의 능력들 간의 관계는 인식능력들 사이의 관계보다 더욱 필연적이며, 판단력의 선형적 원리는 마음의 능력들 간의 관계에 근거를 두기 때문이다. 칸트에 따르면 인식능력들 간의 관계에서 판단력은 지성과 이성의 매개를 위해 제3의 능력으로서 ‘요청된’ 것인 반면, 마음의 능력들 간의 관계에서 쾌·불쾌의 감정이 인식능력과 욕구능력 사이에 자리하는 것은 ‘필연적’인데, 이는 “욕구능력 자체가 필연적으로 쾌 또는 불쾌의 감정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V179)”이다. 칸트는 판단력의 고유한 원리가 쾌·불쾌의 감정을 야기하고, 이 감정에 의해 주관은 비로소 지성의 논리적 사용에서 욕구능력과 관련한 이성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 즉 쾌·불쾌의 감정, 욕구능력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주관은 반성적 판단력의 선형적 원리가 야기하는 쾌·불쾌의 감정에 의해 지성적 판단으로부터 이성적 판단, 즉 객관에 관한 판단으로부터 자유에 관한 판단으로 이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²⁶⁾

그렇다면 반성적 판단력의 선형적 원리는 어떤 것이어야 할까? 칸트는 반성적 판단력이 “자연 안에 있는 특수한 것으로부터 보편적인 것으로 올라가야 하는 임무를 가지기” 때문에 그것의 원리는 “자연이 그것의 특수(잡다)한 것을 통일하는 하나의 원리로부터 나온 필연적인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V180)”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 원리는 다음과 같은 것일 수밖에 없다. 즉 보편적 자연법칙들은 그것들의 근거를 그 자연법칙들을 자연에게 (비록 단지 자연으로서의 자연에 대한 보편적 개념에서이기는 하지만) 지정하는 우리의 지성에서 갖는다; 그러므로 특수한 경험적 법칙들은 저 보편적 자연법칙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것과 관련하여, 마치 어떤 지성이 (비록 우리의 지성

26) V179.

은 아닐지라도) 특수한 자연법칙들에 따라 경험의 체계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인식능력을 위해 부여한 것 같은 그러한 통일성에 따라 고찰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V181)

자연에는 무수한 형식들과 자연개념들의 변양이 존재하는데, 만일 이러한 법칙들이 통일된 체계를 갖지 못한다면 우리의 경험 또한 통일되지 못한 채 서로 다른 법칙들에 의해 모순되고 어긋날 것이다. 자연법칙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지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만 자연은 하나의 통일된 체계로 인식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경험의 통일을 위해 자연은 마치 어떤 ‘초월적 지성’이 우리의 지성을 위해 자연에 통일성을 부여한 것처럼 하나의 원인으로부터 가능한 것처럼 보여야만 한다. 즉 자연은 우리에게 특수한 법칙들의 무차별적인 집합이 아니라, 그 다양한 법칙들이 통일된 근거 아래 하나의 체계로 질서 지어진 것처럼 보여야 하는 것이다. 경험적 법칙들 일반 아래에 있는 자연의 사물들의 형식과 관련하여 자연을 하나의 통일성에 근거한 것으로 보게 하는 판단력의 이 원리는 **자연의 합목적성**이다.

하나의 객관에 대한 개념은 그것이 동시에 객관의 현실성의 근거를 함유하는 것에서 **목적**이라 일컫는다; 또한 한 사물이 오로지 목적들에 따라서만 가능한 사물들의 그런 성질과 합치함을 사물의 형식적 합목적성이라 일컫는다. 그래서 경험적 법칙들 일반 아래에 있는 자연의 사물들의 형식과 관련하여 판단력의 원리는 자연의 잡다함 속의 **자연의 합목적성**이다. 다시 말해, 자연은 이 개념에 의해 마치 지성이 잡다한 자연의 경험적 법칙들의 통일을 함유하고 있는 것처럼 표상되는 것이다. (같은 곳)

칸트는 자연의 합목적성을 설명하며, 목적 및 합목적성의 개념을 간단히 제시한다. 칸트가 제시하는 목적의 개념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목적과 다소 구별되는데, 자연의 합목적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칸트가 제시하는 목적과 이에 근거한 특수한 합목적성의 개념, 즉 형식적 합목적성의 의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목적이란 **결과**로서 표상되며,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 주관의 의도성에 초점을 두어 주로 미래지향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또한 합목적성은 이 목적을 기준으로 한 대상이나 행위가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판정하는 것이다. 반면 칸트에게 있어 **목적**이란 결과가 아닌 원인, 그것도 대상의 현실성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궁극적인 원인을 일컫는 개념이다.²⁷⁾ 칸트의 합목적성은 주어진 대상으로부터 그것을 가능하게 한 원인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사유방식을 일컬으며, 이를 통해 대상이 ‘결

과로서의 개념'과 부합하는지가 아니라 '원인으로서의 개념'과 부합하는지를 판정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인과적 사고체계를 혼돈다. 다시 말해 칸트의 합목적성은 결과로부터 원인으로 향하는 반성적 사고방식을 요구하는 것이다.

판단력의 원리인 자연의 합목적성이란 자연의 존재들이 표면적으로는 다양한 법칙과 형식을 가질지라도 이 존재들이 통일성에 근거하여 체계를 이루고 있다고 여겨지는 것을 말한다. 이 원리는 1) 자연의 형상들 아래에 자연의 체계 자체를 가능하게 한 궁극적인 원인, 즉 자유가 있다 것을 전제하고, 이 전제에 근거하여 2) 자연의 개별 사물들 및 법칙들이 자연이라는 체계를 가능하게 한 자유와 부합한다는 것을 판정한다. 이 원리를 통해 자연의 특수한 것들은 자유라는 보편적 개념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자유에 근거하여 자연은 하나의 통일된 체계로 완성된다.

자연의 합목적성을 통해 자연은 단순히 법칙들의 총체가 아니라 현존 자체가 결과이자 하나의 초감성적 원인인 유기적 통일체가 된다. 자연의 궁극적 원인과 자연 법칙 안에서의 감성적 원인들은 서로 다른 층위에서 작용하여 하나의 합목적적 자연을 형상화하는 데 기여한다. 초월적 자유는 하나의 물리적 결과에 대한 물리적 원인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법칙 자체가 존재할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의 합목적성은 기존의 인과적 사고방식을 거스르는 방향을 취하지만, 합법칙성에 위배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은 합법칙성을 포괄하고, 합법칙성이 표시하는 것보다 더욱 깊은 인과관계, 즉 자연과 자유 사이의 인과관계를 나타낸다. 합목적적으로 표상된 자연 안에서 우리는 자연의 초감성적 원인, 즉 자유를 실천적으로 인식하여 우리 자신이, 다른 자연의 감성적 원인과 마찬가지로, 자유에 근거한 하나의 감성적 원인이 된다. 이를 통해 지성과 실천이성의 유한성이 극복되며 자유는 자연에서 실현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²⁸⁾

자연의 합목적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주관적 원리로 규정된다. 첫째, 자연의 합목적성에서 목적이란 자연이 가진 객관적 목적이 아닌 자유라는 주관적 목적을 의미한다. 자유는 『순수이성 비판』에서 자연의 최초의 원인으로 제시되며, 『실천이성 비판』에서는 도덕법칙의 형태로 제시된다. 『판단력 비판』에서 자유는 목적이

27) “목적이 무엇인가를 그것의 초월적 규정들에 따라서 (쾌의 감정과 같은 어떤 경험적인 것을 전제하지 않고서) 설명하자면, 목적이란 한 개념이 대상의 원인 (즉 대상을 가능하게 하는 실재적 근거)으로 간주되는 한에서 그 개념의 대상이다. 그리고 그 객관에 대한 한 개념의 원인성이 합목적성(forma finalis)이다.” (KU, B33)

28) 칸트는 초월적 연역을 통해 자연의 합목적성이 판단력의 초월적 원리라는 사실을 증명하며, 이에 의해 초월적 원인성이 자연에서 또 다른 계열을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V182-185.

라는 개념으로 제시된다. 앞서 살펴보았듯 목적이란 그것이 없었으면 대상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대상 자체의 궁극적 원인을 말한다. 따라서 한 대상이 목적에 근거한다는 것은 그것이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의도성을 전제하고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넓은 평야에 거대한 기하학 무늬들이 그려진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이것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늬들을 만들고자 한 누군가의 목적이 전제되었다고 여길 것이다. 이와 같이 자연의 합목적성은 자연의 개별적 대상, 나아가 체계 자체가 어떤 의지, 즉 자유라는 의지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을 전제한다. 자유라는 개념 자체가 자연체계의 최초의 원인으로서는 상정된 이념이므로, 거꾸로 자유가 자연체계의 발생이라는 목적을 가졌던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런데 자연은 실제로 자유의 객관적 목적이 아니다. 다시 말해, 자유가 시간의 발생 이전으로부터 자연의 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가졌던 것은 아니다. 자유에 근거하여 자연체계가 발생했다는 것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자연의 체계를 완성시키고자 하는, 또한 이로써 자연의 본질에 더욱 다가가고자 하는 주관의 목적에 의한 것이다.²⁹⁾ 따라서 『판단력 비판』에서 제시되는 목적으로서의 자유는 자연을 발생시킨 하나의 의지가 아니라, 오히려 이 초월적 자유에 다가가고자 하는 주관의 자유로서 이해되는 것이 마땅하다. 정리하면 자연의 합목적성은 주관의 관심에 의한 하나의 이해방식이지 자연 자체가 가진 객관적 속성이 아니며, 이로써 자연의 합목적성은 객관적 원리가 아닌 주관의 목적에 근거한 주관적 원리로 남는다.

그런데 자유라는 주관의 목적은 자연 안에 객관적으로 제시되지 않는데, 우리는 무엇에 근거하여 자연과 자유의 부합을 판정할 수 있을까? 이는 쾌·불쾌의 감정에 의해서이다. 둘째, 자연의 합목적성이 갖는 두 번째 주관적 측면은 이것이 객관적 개념이 아닌 주관의 쾌·불쾌의 감정에 규정근거를 둔다는 점이다. 주관은 객관적 목적에 근거하여 자연의 합목적성을 판정할 수 없지만, 이것을 자신의 쾌감에 의하여 판정할 수 있다.

모든 의도의 달성은 쾌의 감정과 결합되어 있다. 그리고 의도의 달성의 조건이, 이 경우의 반성적 판단력 일반을 위한 원리처럼, 선험적 표상이라면, 그 쾌의 감정 또한 선험적 근거에 의해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타당하게

29) 칸트는 자연의 합목적성에서 목적이 주체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관의 반성하는 능력 안에(XX216)” 있는 것임을 강조한다. 자연의 합목적성은 현상으로서의 자연을 넘어 자연으로부터 궁극적 자유를 발견하고자 하는 주관의 목적에 관한 것이며, 이는 이 원리가 객관적 원리가 아니라 주관적 원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규정되어 있다. (V187)

합목적적이라는 것은 목적의 달성을 의미하며, 목적의 달성은 쾌감을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합목적적이라는 것은 쾌감과 결합되어 있으며, 쾌감을 느낀다는 것은 합목적적이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자연의 합목적성은 자연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리고 자연의 체계를 완성시키고자 하는 주관의 목적이 달성되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자연이 주관에게 합목적적인 것으로 여겨진다면, 이것은 쾌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여기에서 쾌감은 그 자체로 자연의 합목적성을 판정하게 하고 이것의 타당성을 보증하는 징표가 된다.

그렇다면 주관의 목적 및 쾌감에 근거하는 이 원리가 경험적 타당성을 넘어 선험적 타당성을 가질 수 있을까? 자연의 합목적성은 주관적 특성으로 인해 그 원리의 선험성에 대한 증거가 더욱 요구된다. 칸트는 **자연의 합목적성을 통해 느끼는 쾌감이 선험적 근거에 의거하는바, 이에 근거한 판단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 타당성을 갖는다고 밝힌다.** 그리고 칸트는 이를 입증하는 것을 『판단력 비판』의 최우선의 과제로 삼는다.

2.4. 자연의 합목적성의 두 종류와 미적 합목적성의 역할

『판단력 비판』은 제1편 <미감적 판단력 비판>과 제2편 <목적론적 판단력 비판>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 제1편에서는 두 종류의 미감적 판단력, 즉 취미와 승고의 판단력이 제시되고, 제2편에서는 자연목적론적 판단력이 제시된다. 칸트는 자연의 합목적성을 주관적 합목적성과 객관적 합목적성으로 나누고, 취미판단의 원리로 주관적 합목적성을, 자연목적론적 판단력의 원리로 객관적 합목적성을 제시한다. 자연의 합목적성은 본디 쾌감에 규정근거를 두는 주관적 원리이지만, 주관적 합목적성과 객관적 합목적성의 구분은 규정근거가 주관적인가 객관적인가와 별개로 합목적성이 주관의 능력에 귀속되느냐, 객관에 귀속되느냐와 관련한다.

주관적 합목적성이란 개별적 대상의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인 취미판단의 원리이다. 취미판단은 미감적 판단으로 대상의 객관적 성질이 아닌 주관의 감정을 서술하는 것인데, 대상이 아름답다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무관심적 쾌감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미판단은 주관이 대상을 반성하여 쾌감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자유로운 이성적 능력을 가졌다는 사실에 대한 판단이기도 하다. 취미판단은 주관의 자유와 그에 근거한 주관 능력들 사이의 합목적적 관계를 판정

하는 데에 판단의 의의를 두며, 이에 따라 이것의 원리는 주관적 합목적성으로 규정된다. **객관적 합목적성**이란 자연의 대상과 대상, 법칙과 법칙 사이의 구조적인 합목적성을 판단하는 원리이다. 달리 말해 이것은 자연을 자유의 이념에 근거하여 통일된 체계로 표상하는 원리를 말한다. 여기에서 자연의 합목적성은 비록 주관의 자유에 근거한 것일지라도 자연의 체계에 귀속되기 때문에 자연의 객관적 합목적성으로 불린다.

칸트는 **주관적 합목적성과 객관적 합목적성을 차례로 제시하는데, 이는 각각 자연과 자유의 매개의 단계에 상응한다.** 인간의 이성적 활동의 첫 단계가 자연의 인과법칙을 발견하고 자연에 대한 물리적 감각을 획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면, 두 번째 단계에서 주관은 공동체 안에서 도덕법칙을 습득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 주관은 취미판단을 통해 자신이 자연법칙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이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 취미판단을 통해 주관은 스스로가 이성적 능력을 가진 보편적 존재이자, 자기 자신의 고유한 목적과 감정을 가진 주관적이고 개별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며, 또한 자연의 대상은 이러한 우리의 능력에 부합한다는 믿음을 획득한다. **이러한 전제에 근거하여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서 주관은 스스로를 자유에 근거한 합목적적 존재라고 의식하듯 자신의 능력에 부합하는 자연 또한 자유에 근거한 하나의 유기적 체계로 표상할 수 있게 된다. 자연은 현상을 넘어 세계를 인식하고자 하는 주관의 목적, 그리고 감성적인 것과 초감성적인 것의 구분을 넘어 자연을 하나의 완성된 체계로 이해하고자 하는 주관의 목적에 부응하며, 우리의 이성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마치 하나의 이념에 근거하여 체계를 갖는 것처럼 존재한다. 자연목적론적 판단력은 자연을 이성적 이념에 근거한 하나의 완성된 체계로서 표상함으로써 자연과 자유의 매개를 완성한다. 정리하면 **미감적 판단력은 자연의 특수한 것으로부터 주관적 자유를 발견함으로써 자유의 이념에 타당성을 부여하고, 자연의 대상이 주관의 인식능력에 부합한다는 확신을 제공한다.** 이러한 전제에 근거하여 주관은 자유라는 통일된 원인성에 근거하여 자연을 하나의 통일된 체계로 표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칸트는 『판단력 비판』에서 미감적 판단력의 선형적 원리를 고찰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밝히며, 그의 미학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미감적 판단력의 비판> 제1절 <미감적 판단력의 분석론>은 취미의 분석과 숭고의 분석으로 나뉘며, 이들 중 주관적 합목적성에 근거하는 판단은 취미의 판단에 해당한다. <미감적 판단력의 분석론> 제1권 <미 분석론>은 취미판단을 네 가지의 계기에서 고찰하여 아름다움의 특징을 밝히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 분석론>은 미적 쾌감의 보편적 전달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취미판단이 합목적성의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칸트의 주장을 염두에 둔다면, <미 분석론>은 쾌감에 근거하되

보편타당성을 지닌 선험적 원리인 ‘합목적성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대목이라는 것을 읽어낼 수 있다.

칸트는 <미 분석론>의 제3계기에서 취미판단을 목적에 의한 관계의 면에서 고찰하며 취미의 원리, 즉 주관적 합목적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그러나 제3계기뿐만 아니라 <미 분석론> 전체가 주관적이면서 동시에 보편타당한 선험적 원리를 정당화하는 부분이다. 칸트는 제1계기와 제2계기에서는 각각 주관적 합목적성을 위한 조건과 주관적 합목적성의 선험적 근거를 제시하며, 제3계기에서 목적 및 합목적성의 개념을 상술한 뒤 이것을 제4계기에서 공통감이라는 이념으로 고양시킨다. 이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제1계기), 취미판단은 판단 대상에 대해 사적 관심은 물론 이론적 관심과 실천적 관심으로부터 해방될 것을 요구한다. 주관의 관심에 근거하여 대상을 판단할 때에는 그 관심에 비추어 대상을 제한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취미판단에서 주관은 대상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가지며, 이를 통해 특정한 개념이나 인식에 제한되지 않고 대상의 있는 그대로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비판철학체계 내에서 고찰할 때 취미판단이 대상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를 요구한다는 것은 관심에 의한 이성의 제한적 사용으로부터 주관을 해방시키고 인식판단, 실천판단의 한계를 넘어 대상 자체의 본질에 더욱 다가가게 한다는 것을 뜻한다.

둘째(제2계기), 이성의 능력에 근거한 반성적 차원의 쾌감을 제시한다. 칸트는 아름다움으로부터 느끼는 쾌감이 감각적 자극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성에 의한 쾌감이라고 밝힌다. 이 쾌감의 원천은 감각적 자극이 아니라 이성의 자유로운 반성활동에서 느끼는 유희이다. 반성적 쾌감의 제시는 이성과 감성의 이분법적 분리를 넘어서 이성의 능력에 근거한 쾌감, 쾌감에 근거한 판단력이라는 인간 능력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인간의 감정적 능력은 수동적이고 열등한 능력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 그 고유한 능력을 재평가 받게 된다.

셋째(제3계기), 취미판단은 대상을 수단으로서 판단하는 것이 아닌 그것의 실존 자체에 비추어 판단하는 원리에 근거한다. 취미의 원리는 대상의 형식으로부터 무관심적 쾌감을 느끼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이 우리의 자유로운 이성적 능력이라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다. 이 원리에서 대상은 인과적 계열에서 원인 또는 결과로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대상의 존재 자체에 비추어 판단된다. 즉 취미판단은 대상을 개념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대상의 존재 자체의 가능성에 비추어 판단함으로써 존재의 본질에 한층 더 다가간다. 이러한 원리는 이성의 자유로움을 의식하게 하는 판단이자, 대상 안에서 주관적 자유라는 궁극적 목적을 발견하게 하는 판단으로, 자연에서 자유를 발견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넷째(제4계기), 인간의 쾌감을 공통감의 지평으로 끌어올릴 것을 요청한다. 칸트

는 인간이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실천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통감’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행위할 것을 요청한다. 그의 주장은 반성을 통해 느끼고, 그 감정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그 판단을 통해 자유를 행하는 데 까지 나아가는 것이 이성적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이는 ‘인류애’와 같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우리는 이성적 인간이기에 직접 겪지 못한 고통, 연민, 애정 등을 반성을 통해 느낄 수 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인간의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마음은 인류 일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물론 인간에 대한 인간의 경험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바, 우리는 그 안에서 증오와 경멸 등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개별적 경험으로 인류애라는 이념을 무효화시킬 수는 없는데, 이 이념은 경험보다 보편적인 것이고, 이성적 인간은 개인의 경험 아래에 이 보편을 근거에 둘 수 있는 힘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취미판단의 원리를 미적 합목적성으로 규정하고자 하는데, 그 까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앞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자연의 주관적 합목적성과 자연의 객관적 합목적성은 모두 규정근거를 주관에 둔다는 점에서 주관적 원리이므로, 취미판단의 원리를 주관적 합목적성으로 해석할 경우 혼란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취미판단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층위의 합목적적 관계들을 포괄하기 위함이다. 취미판단은 미적 대상과 주관의 합목적적 관계, 주관 능력들에서 인식능력들과 쾌감의 합목적적 관계, 인식능력들에서 상상력과 지성의 합목적적 관계와 같이 다양한 층위의 합목적성을 포함한다. 그러나 주관적 합목적성은 인식능력들 사이의 합목적적 관계만을 지칭하는 듯 보이기 때문에, 합목적성의 다양한 층위를 포괄할 수 있는 또 다른 규정이 필요하다.

3. 쾌감과 합목적성의 연결

반성적 판단력은 이론이성과 실천이성의 중간에 위치함에 따라 반성적 판단력의 원리는 (이론이성이 규정근거로 삼는) 인식능력과 (실천이성이 근거로 삼는) 욕구능력의 중간에 위치하는 쾌·불쾌의 감정을 규정근거로 삼아야 한다. 제3장에서는 쾌감의 성질을 분석함으로써 쾌감과 합목적성의 연결에 대한 근거를 발견하고, 쾌감에 의해 형식적 합목적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3.1.에서는 『실용적 관점에서 본 인간학』에서 서술되는 쾌감의 일반적 정의를 확인하고, 쾌감을 느끼는 것이 그 자체로 주관의 내적 목적의 달성이라는 면에서 합목적성과 관계한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이어 3.2.에서는 칸트가 합목적성의 개념을 상술하는 <미 분석론> 제3계기의 제10절을 분석하고자 하는데, 먼저 1) 합목적성의 일반적 규정을 제시하고 2) 쾌감을 합목적성과 연결한 후, 3) 쾌감의 속성에 의해 대상이 목적의 전제 없이도 형식적으로 합목적적인 것으로 판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인다.

3.1. 쾌감의 일반적 성질

칸트는 『실용적 관점에서 본 인간학』에서 인간의 능력을 인식능력, 쾌·불쾌의 감정, 욕구능력으로 나누고 쾌와 불쾌의 감정을 설명하는 데에 하나의 장을 할애한다.³⁰⁾ 칸트에 의하면 쾌감은 1) 감성적인 쾌와 2) 지성적인 쾌의 두 종류로 나뉜다. 감성적인 쾌는 다시 a) 감각에 의한 것[쾌락]과 b) 상상력에 의한 것[취미]로 나뉘며, 지성적인 쾌는 a) 개념에 의한 것과 b) 이념에 의한 것으로 나뉜다. 3.1.에서는 감성적인 쾌, 특히 감각에 의한 쾌인 ‘쾌락’에 대한 칸트의 서술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 글이 미적 합목적성을 주제로 삼음에도 취미가 아닌 쾌락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는 까닭은 쾌락의 쾌감과 취미의 쾌감이 감각에서 느껴지는 바는 동일하며, 쾌감이 감각에 작용하는 바로 이 성질이 미적 쾌감과 합목적성의 연결에 대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쾌감은 이러저러한 원인에 의해 감각에서 쾌적함을 느끼는 것이고, 쾌락은 오직 감각에 직접 작용하는 쾌적함이기 때문에, 쾌락의 규정은 쾌감 자체의 감성적 성질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 따라서 쾌락의 규정으로부터 쾌감의 일반적 성질을 규명하고, 이를 합목적성과 연결하는 것은 미적 쾌감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30) Anth, AB 168-202.

먼저 칸트가 제시하는 쾌락의 정의를 살펴보자.

쾌락이란 감각에 의한 쾌이다. 감각을 즐겁게 하는 것은 쾌적이라고 부른다. 고통은 감각에 의한 불쾌이다. 고통을 낳는 것은 불쾌적이다. (Anth, AB169)

쾌락이란 인식능력의 매개 없이 감각에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쾌이다.³¹⁾ 칸트는 쾌락의 감각적 특성을 두 측면에서 설명한다. 첫째, **쾌락과 고통은 시간의 계기 속에서 감각의 즐거움을 획득하고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들(쾌락과 고통)은 서로 획득과 결여(+와 0)처럼 대립해 있는 것이 아니라, 획득과 상실(+와 -)처럼 대립해 있다. 즉 한 쪽은 다른 쪽에 대해서 **대립**(모순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대립하는 것 *contradictorie sive logice oppositum*)으로서뿐만 아니라, **대항**(상반적으로 또는 실재적으로 대립하는 것 *contrarie sive realiter oppositum*)으로서 맞서 있다. (같은 곳)

쾌락과 고통은 주관의 어떤 절대적인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쾌적함의 상태가 상대적으로 획득되거나 상실됨을 설명하는 것이다. 쾌적함의 절대적 양과 관계없이 쾌적함이 점점 증가하는 상태라면 이것은 쾌락이고, 점점 상실되는 상태라면 이는 곧 고통이다. 따라서 만일 주관이 쾌적한 상태에 놓인다면 주관은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획득함으로써 쾌락에 머무르고 싶어 할 것이다. 쾌락의 이러한 성질은 쾌적함이 주관의 마음에 미치는 작용에 관한 다음의 설명으로 이어진다.

둘째, **쾌적함이란 표상이 나의 마음을 현재의 상태에 머무르도록 자극하는 것이며, 불쾌적함이란 현재의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나를 자극하는 것이다.**

나의 현재 상태를 **버리도록** 나를 직접적으로(감관에 의해서) 자극 하는 것은 나에게 **불쾌적**이다. 그것은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마찬가지로 그런 상태를 **유지하도록** 나를 자극하는 것은 나에게 **쾌적**이다. 즉 그것은 나를

31) 칸트는 제2계기의 9절에서 미적 쾌감의 보편타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감각에 직접적인 쾌감과 인식능력의 활동에 근거하는 쾌감을 비교한 바 있다. 여기에서 칸트는 쾌락이란 인식능력의 활동 없이 순전히 감각에만 직접적인 쾌감이므로 미적 쾌감과 달리 개인적 타당성만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칸트는 여기에서 이 두 쾌감이 감각에서 느껴지는 것은 동일하다고 밝힌다.

즐겁게 한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리고 이것과 결합한 감각의 교체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AB170)

쾌적인 것은 주관으로 하여금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도록 자극하며, 반대로 불쾌적인 것은 현재의 마음상태에서 벗어나도록 자극한다. 이것을 한 표상과 연결하여 설명해보자. 악취를 맡거나 더러운 것을 보았을 때 주관은 감각을 차단하여 그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할 것이다. 반면 쾌적인 것, 가령 맛있는 음식이나 편안한 침대는 주관으로 하여금 계속 **그 상태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자극한다. 이러한 상태에 머물므로써 쾌적함을 증가시킨다면 이는 곧 쾌락이며, 점점 잃어간다면 이는 곧 고통이다.

쾌락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우리는 쾌·불쾌의 감정에 관한 다음의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첫째, 쾌락은 쾌적함의 지속적 획득에 의해 가능한 것이므로, 주관은 쾌적함을 느낄 때 그 상태를 지속시킴으로써 쾌락에 머물고자 한다. 이는 곧 **쾌적함이 그 자체로 현재상태의 유지 및 강화라는 내적 목적을 내포하며, 주관이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주관의 내적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둘째, 쾌적함을 표상과 연결하여 생각할 때, **한 표상이 쾌적하다는 것은 그것이 주관의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자극을 준다는 것을 뜻이다.** 이에 따라 이 표상은 주관으로 하여금 쾌적함에 머물도록 자극한다는 점에서 주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 즉 합목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쾌·불쾌의 감정의 이러한 특성은 쾌감을 합목적성과 연결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 이 성질을 바탕으로 쾌감을 느끼는 주관의 상태와 쾌감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은 모두 목적 및 합목적성의 개념을 통해 설명된다. 칸트는 <미 분석론> 제3계기의 첫 대목에서 합목적성 일반에 대해 설명하며 합목적성과 쾌감의 연결을 시도하는데, 3.2.에서 이에 대해 더욱 자세히 고찰해보자.

3.2. 쾌감에 의한 형식적 합목적성의 가능성

칸트는 <미 분석론>의 제3계기에서 본격적으로 미적 합목적성을 다룬다. 제3계기의 첫 번째 절인 제10절은 ‘합목적성 일반에 관하여’라는 제목과 함께 시작하여 취미판단이 규정근거로 삼는 형식적 합목적성의 규정을 설명한다. 형식적 합목적성이란 미적 합목적성의 기본개념이자 자연의 합목적성의 근간이 되는 개념이다.³²⁾ 칸

32) 이 글의 2.3.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형식적 합목적성은 『판단력 비판』의 서문에서 자연의

트는 <미 분석론>의 제3계기 외에 『판단력 비판』의 다른 어디에서도 형식적 합목적성의 규정을 이처럼 자세히 제시하지 않는다. 칸트는 <미 분석론>에서 형식적 합목적성을 고찰함으로써 반성적 판단력의 원리 자체를 정당화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3.2.에서는 칸트의 특유한 합목적성인 형식적 합목적성을 분석하고자 하는데, 이는 취미판단은 물론 『판단력 비판』에서 제시되는 자연의 합목적성에 대한 이해의 바탕이 된다.

제10절은 두 문단으로 나뉘어 각각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일반적 합목적성이, 두 번째 문단에서는 형식적 합목적성이 제시된다. 칸트는 일반적 합목적성과 구별되는 형식적 합목적성의 가장 큰 특징이 개념이 아닌 쾌·불쾌의 감정에 규정근거를 두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대한 칸트의 설명방식은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1) 객관적 목적과 관련하는 일반적 합목적성의 규정을 제시한다. 2) 인식판단이 아닌 합목적적 판단을 내리는 경우를 제시하며 의도성의 개념을 도입한다. 3) 의도의 달성이 쾌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합목적성과 쾌감을 연결한다. 4) 목적이 전제되지 않더라도 반성을 통해 합목적적 쾌감의 근거에 자리하는 의도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통해 형식적 합목적성의 가능성을 설명한다. 3.2.에서는 쾌감과 합목적성 사이의 연관성에 주목하여 제10절에서 제시되는 형식적 합목적성의 규정을 면밀히 분석하고자 한다.

3.2.1. 일반적 합목적성

‘취미판단들에서 고찰된 목적들의 관계의 면에서’라는 제3계기의 제목이 시사하듯, 칸트는 취미판단을 ‘관계’의 계기에서 분석하며 취미판단에서 목적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특수한 인과관계를 설명한다. 합목적성을 이해하는 것의 핵심은 합법칙적 인과법칙과 구별되는 합목적성의 특수한 인과적 특징을 이해하는 것인 까닭에, 여기에서는 칸트의 설명방식에 따라 원인과 결과의 범주 안에서 합목적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10절의 첫 문단에서 칸트는 합법칙성 및 실천적 합목적성 등을 모두 포괄하는 **일반적 의미의 합목적성**의 규정을 제시한다. 칸트는 이것이 경험적 요소들을 제외한 초월적 규정으로서의 합목적성이라고 말한다.

목적이 무엇인가를 그것의 초월적 규정들에 따라서 (쾌의 감정과 같은 어떤 경험적인 것을 전제하지 않고서) 설명하자면, 목적이란 한 개념이

합목적성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간단히 제시된다.

대상의 원인 (즉 대상을 가능하게 하는 실재적 근거)으로 간주되는 한에서 그 개념의 대상이다. 그리고 그 객관에 대한 한 개념의 원인성이 합목적성(forma finalis)이다. (KU, B33)

칸트는 서문에서 제시한 목적의 규정을 더욱 구체화한다.³³⁾ 서문에서의 설명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목적의 개념은 대상의 현실성의 근거를 함유하는 **원인**이며, 대상은 **결과**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목적과 대상은 원인과 결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원인의 개념은 결과의 대상을 지시하며, 결과의 대상은 원인의 개념을 내포한다. 이러한 목적의 개념은 형식적 합목적성의 의미를, 즉 대상이 그 자체로 원인이자 결과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준비시킨다. 인식판단에서의 객관적 목적과 궁극목적에서의 도덕적 목적이 시간의 계열 안에서 원인과 결과로 이어지는 일방향적인 관계를 취한다면, 형식적 합목적성은 일방향적 사고방식을 통해서는 의식될 수 없는 특징을 갖는다.

목적의 개념을 바탕으로 합목적성의 규정이 도출된다. **합목적성이란 목적의 개념이 대상에 대해 갖는 원인성이다.** 쉽게 말하자면, 목적의 개념과 그에 부합하는 대상이 인과관계로 맺어졌을 때, 즉 목적의 개념에 의해 그 대상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이 관계를 합목적적이라고 부른다. 예컨대 여행이라는 목적을 떠올리고 그에 알맞게 여행을 실현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여행이라는 개념은 원인으로 작용하여 실제 여행의 목적을 실현시킨다. 만일 내가 떠올린 여행의 목적과 그 결과가 일치했을 때 이들의 관계는 합목적적이라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합목적성이란 대상을 그것의 원인인 목적의 개념과 비교하고 그들이 서로 부합함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제 칸트는 우리가 **합목적적인 판단을 내리게 되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33) Allison은 합목적성과 관련하여 제10절기에서 제시되는 규정들을 서문에서 제시되는 규정과 일관되게 해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고 말한다. Allison은 합목적성은 서문에서 자연의 대상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제시됨에 반해, 제10절에서는 개념과 관련한 원인성으로 설명되며, 아무런 설명 없이 이를 합목적성의 형식과 동일시 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한다. 그런데 칸트는 서문에서 합목적성을 자연의 대상 및 법칙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 설명하기도 하지만, 2.3.에서 살펴보았듯이, 합목적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목적을 대상의 가능성의 원인으로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서문에서 제시되는 규정과 제10절에서 제시되는 규정은 서로 다른 규정이 아니라, 오히려 제10절이 서문의 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한낱 대상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대상 자체가 (대상의 형식 또는 실존이) 결과로서 오로지 그 결과의 개념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는 곳에서, 사람들은 하나의 목적을 생각한다. 결과의 표상은 여기서 그 원인의 규정근거로서 그 원인에 선행하는 것이다. (같은 곳)

인식은 대상을 시공의 질서 안에서 위치 짓는 것이다. 인식판단에서 대상은 다른 사물들과의 관계에서 원인이나 결과로서 규정된다. 그러나 목적에 관한 판단에서는 대상과 다른 사물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오직 대상 자체 혹은 대상의 존재 자체가 문제시된다. 우리가 대상을 목적의 표상과 관련하여 생각할 때는 대상의 존재가 다른 사물과의 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결과로서 그 개념을 표상하는 것'을 통해 가능해진다고 생각될 때이다. 다시 여행이라는 목적을 생각해보자. 여행은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행의 발생은 오직 주관이 여행이라는 목적을 떠올림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여행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자연적인 원인과 연결하기 보다는 여행의 목적이라는 의도가 있었음을 떠올릴 것이다. 즉 대상을 목적과 연관 짓는다는 것은 그 대상의 존재가 의도성을 전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대상의 합목적성은 대상의 존재가 이 의도성에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 합목적성에 관한 설명은 다음의 두 가지로 특징지을 수 있다. 첫째, 목적이란 하나의 의도성으로서의 원인을 의미하며, 합목적성은 의도의 달성을 의미한다. 목적의 개념은 자연법칙 안에서의 대상의 실제적 원인이 아니라 대상의 가능성을 향한 주관의 의도성이며 한 대상이 합목적적이라는 것은 대상이 그 근저에 의도성을 전제한다는 것을 뜻한다.³⁴⁾ 둘째, 대상에 대한 인식은 원인-결과의 인과관계에 근거하지만, 대상의 합목적성의 의식에서는 결과의 표상이 원인에 선행한다는 점이다. 합목적성에서도 물론 대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물리적 원인이 필요할 수 있지만, 목적의 표상은 그들 모두에 선행하여 이 사태를 발생시킨다. 합목적성은 결과의 표상을 먼저 떠올린 후에 결과를 실현시키기 위한 원인이 발생한다는 점, 즉 결과가 원인에 선행한다는 점에서 인식과 구별된다. 그러나 결과의 표상은 실존으

34) 합목적성에 관한 이러한 조건은 2.3.에서 살펴본 반성적 판단력의 합목적성과 연결된다. 2.3.에서는 1) 합목적성이 특수와 특수가 아닌 특수와 보편의 관계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합법칙성과 구별된다는 것과 2) 합목적성에서의 목적은 유용성과 관련한 목적이 아닌 가장 궁극적 원인으로서는 목적이라는 것을 설명한 바 있다. 즉 여기까지의 설명은 반성적 판단력의 합목적성 일반과 일맥상통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 규정은 아직 형식적 합목적성을 설명하는 데에 충분치는 않다. 이 규정과 더불어 형식적 합목적성은 전제된 목적이 없어야 한다는 특수한 조건을 요구하는데, 이는 이후 3.2.3.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로서 제시되는 것이 아닌 개념으로서 제시되기 때문에 이는 합법칙성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3.2.2. 합목적성과 쾌감의 연결

칸트는 합목적성의 초월적 규정에 경험적인 속성을 덧붙인다. 합목적성을 쾌감과 연결하는 것이다.

자신을 그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는 주관의 상태에 대한 표상의 원인성의 의식이 여기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쾌감이라고 부르는 것을 표시할 수 있다. (같은 곳)

쾌감을 느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자신의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고자하는 내적 목적을 함유하며, 현재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는 자극을 필요로 한다. 칸트는 이러한 쾌감의 성질을 한 대상의 표상과 연결하여 **한 대상을 통해 쾌감을 느끼는 것을 합목적적인 것으로** 설명한다. 어떤 표상이 주관에게 자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부추길 때, 자신의 상태에 대한 표상의 원인성을 의식하는 것은 곧 쾌감이다. 예를 들어 내가 소파에 앉음으로써 계속 이 상태에 머물러있고자 함을 의식했을 때, 혹은 좋은 음악을 들음으로써 계속 이 음악을 듣고자 할 때, 소파 및 음악이 나를 이 상태에 머물도록 만듦을 의식하는 것이 곧 쾌감이며, 이때 이 대상들은 합목적적인 것이 된다.

이 짧은 설명에는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이 내재되어 있다. **첫째**, 칸트는 목적 및 합목적성의 개념을 설명 후 자신의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쾌감의 속성을 강조하며, **쾌감의 이러한 속성을 일종의 ‘내적 목적’에 빚대어 설명한다**. 이에 따라 1) 쾌감을 불러일으키는 대상과, 2) 쾌감을 유지하는 주관 모두 주관의 내적 목적 달성이란 점에서 합목적적인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쾌감과 합목적성의 긴밀한 연관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목적이 대상의 개념과 관련한 것이 아니라 **주관과 관련한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게 만든다. 칸트가 목적 및 합목적성을 ‘개념’을 통한 인과관계로서 설명하고 있지만, 같은 문단에서 주관의 상태와 쾌감을 바로 연결함으로써 칸트가 다루고자 하는 합목적성이 **대상의 개념과 관련한 목적이 아니라 주관의 상태와 관련한 목적 및 합목적성**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둘째, 칸트는 쾌감을 주관상태의 합목적성의 ‘의식’으로서 설명한다. 칸트는 합목적성을 대상에 대해 개념이 갖는 **원인성**으로 설명한 후, 자신의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주관의 상태에 대한 표상의 **원인성의 의식**을 쾌감으로 규정한다. 즉 **쾌감을 주관의 상태와 관련한 합목적성의 의식으로서 설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칸트는 쾌감이 인식과 구별되는 또 다른 형태의 의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의식은 표상이 주관의 상태에 갖는 힘은 물론 자기 자신의 감각적 상태에 대한 자기의식 역시 포함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쾌감과 합목적성의 이러한 연결은 쾌감을 느끼는 일반적 상황에 모두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합목적적인 것은 쾌감을 불러일으키고, 쾌감을 지속하는 주관의 상태는 그 자체로 합목적적이며, 쾌감은 이에 대한 의식을 모두 포함한다. 그런데 특히 합목적성과 쾌감의 연결은 취미판단에서 더욱 중요하게 부각된다. 쾌감은 주관이 대상을 합목적적인 것으로 판정함에 있어 판정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취미판단에서 주관은 대상이 쾌감을 불러일으킨다는 바로 그 점에서 대상을 합목적적인 것으로 판정한다**. 그런데 취미판단은 특정한 종류의 쾌감에 근거할 것을 요구한다. 이 쾌감은 우선 1) 대상의 실존에 무관심한 쾌감이어야 하며, 2) 목적의 표상이 전제되지 않은, 개념 없이 주어지는 쾌감이어야 한다. 이어 이 두 번째 조건과 관련하여 형식적 합목적성의 규정을 살펴볼 것이다.

3.2.3. 형식적 합목적성

칸트는 제10절의 첫 번째 문단에서 일반적 합목적성을 설명하며 “**결과의 표상이 그 원인의 규정근거로서 그 원인에 선행(B33)**”한다고 말한다. 즉 목적의 실현이나 목적의 실현을 위한 물리적 원인을 발생시키는 것보다 표상으로서의 목적이 가장 선행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제10절의 두 번째 문단에서 칸트는 **전제된 목적의 표상 없이도 대상을 합목적적으로 의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칸트는 합목적성과 쾌감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목적 없는 합목적성, 즉 형식적 합목적성의 가능성을 설명하고, ‘의지’를 끌어들여 합목적성을 반성적 판단력의 규정과 연결한다.

하나의 객관이나 마음상태, 또는 행위는, 비록 그것들의 가능성이 어떤 목적 표상을 반드시 전제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의 원인성을 목적들에 따라서, 다시 말해 모종의 규칙의 표상에 따라서 그 행위를 그와 같이 배열했을 의지를 그 행위의 근거로 상정하는 한에서, 오직 그것들의 가능성이 우리에게 의해 단지 설명될 수 있고 파악될 수 있다는 바로 그 이유만으로도 합목적적이라고 일컬어진다. (B34)

대상은 반드시 목적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합목적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칸트에 의하면 한 객관, 마음상태 혹은 행위는 목적의 표상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이들(객관, 마음상태 혹은 행위)의 근거로 목적에 의한 하나의 원인성을 상정하여 이들의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합목적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풍경을 바라봄으로써 쾌감이라는 마음상태가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내가 쾌감을 얻기 위해 풍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더라도, 그 풍경이 나에게 쾌감을 불러일으켰을 때, 내게 어떤 의도가 있었으며 그 풍경이 그 의도와 부합한다는 점에서 쾌감을 불러일으켰음을 설명할 수 있다면 그 풍경은 합목적적인 것이 된다.

의지와 관련하여 설명되는 목적 없는 합목적성의 규정은 합목적성에 관한 새로운 국면으로서 제시되는 듯 보인다. Allison은 의지와 관련한 이 설명이 쾌감과 관련한 첫 문단의 설명보다 미적 합목적성을 더 타당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칸트가 의지를 개입하여 합목적성을 설명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다.³⁵⁾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는 두 가지 근본적인 오류가 있는데, 먼저 1) Allison은 첫 문단과 둘째 문단이 각각 다른 종류의 합목적성, 즉 일반적 합목적성과 형식적 합목적성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첫 번째 문단에서의 목적 및 합목적성의 개념은 일반적 의미의 개념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는 여행, 집짓기, 도덕적 실천 등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유효하며, 형식적 합목적성으로 한정할 수 없다. 또한 2) Allison이 해석한 것과 반대로, 두 번째 문단에서 제시되는 형식적 합목적성은 합목적성의 새로운 측면이 아니라 첫 문단과 연결된다는 것이다. 목적이 전제되었을 경우 대상은 객관적 목적에 근거하여 그 합목적성의 객관적 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원인성을 상정하여 대상의 합목적성을 판정할 때에는 과연 그러한 임의적 상정이 타당한지를 보증해주는 객관적 목적이라는 근거가 결여되어 있다. 전제된 목적 없이 원인성을 상정하여 대상의 가능성을 설명하는 것에는 쾌감의 개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목적의 개념이 없을 때 목적의 달성을 알리는 것은 오직 쾌감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적 없는 합목적성의 판정에서는 가장 먼저 대상에 대해 쾌감을 느끼는 것이 선행하며, 반성을 통해 이 쾌감의 원인성을 상정으로써 대상이 합목적성의 가능성을 설명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자. 합목적성의 판정은 목적이 없이도 가능하다. 그러나 목적의 전제 없이도 대상을 합목적적인 것으로 판정 수 있는 것은 오직 쾌감을 통해서이다. 즉 일단 주관이 쾌감을 느낀 후 대상이 주관의 마음상태의 변화에 대해 원인성을 가진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때 여기에서 대상은 목적의 전제 없이도 합목적적인 것으로 규정될 수 있다.

35) Allison(2001), p.124.

그러므로 합목적성은 목적 없이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형식의 원인들을 의지 안에 두지 않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의 의지에서 이끌어냄으로써만 그 가능성의 설명을 이해할 수 있는 한에서 그러하다. (같은 곳)

우리는 쾌감을 통해 느껴지는 인과관계의 형식에서 어떠한 의도성을 질료적 원인으로 규정하지 않았더라도, 이 쾌감의 근거에 의도의 달성이 자리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이것을 목적의 전제 없이도 합목적적이라고 관정할 수 있다. 즉 그 풍경이 내게 원인 모를 쾌감을 불러일으키는 까닭을 나의 내적 의도와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면, 그 풍경은 다른 사태와 무관하게 그것의 실존만으로 목적의 전제 없이도 합목적적인 것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의 합목적성을 그 형식의 면에서, 그것의 근거에 하나의 목적을 (목적 連結의 질료로서) 놓지 않고서도, 적어도 관찰할 수 있으며, 대상들에서 비록 반성에 의해서일 뿐이지만 인지할 수가 있다.

전제된 목적 없이 대상을 합목적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형식적인데, 목적이 전제되지 않았을지라도 목적을 발견함으로써 목적에 의한 원인과 결과라는 형식을 갖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해 대상에 후행하는 것은 목적이라 할 수 없다. 목적이란 한 행위, 객관, 주관의 상태를 발생시키기 위해 주관이 사전에 갖는 의도성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쾌감을 통해 대상의 합목적성을 가정했기 때문에, 반성을 통해 상정한 대상의 가능성의 원인을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아가 여기에서 우리는 쾌감에 의해 주관이 사전에 의식하지 않았던 주관의 의도성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목적 없는 합목적성에서 발견되는 목적은 가상의 목적이 아니며 단순 원인의 개념이 아니다. 즉 이 목적은 대상의 가능성에 대한 의도성이라는 목적의 개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다. 이것이 목적 없는 합목적성이라고 불리는 까닭은 1) 목적이 대상에 전제되지 않았으며, 2) 이 목적이 대상 자체에 관한 목적, 즉 대상을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목적 없는 합목적성에서 목적과 의도성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견된다. 따라서 목적 없는 합목적성은 목적과 대상이라는 뚜렷한 인과적 형식을 가지며, 그러한 한에서 형식적 합목적성으로 규정된다.

칸트가 합목적성과 관련하여 제시하는 형식이란 대상의 객관적 측면과 관련한 것이 아니라 목적에 근거한 인과관계, 즉 목적으로서의 개념과 결과로서의 대상의 실

존 사이의 관계를 지칭한다. 이러한 설명은 합목적성의 형식 및 형식적 합목적성을 대상의 성질로 귀속시키려고 한 연구들, 즉 Ameriks나 Crawford와 같은 연구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 <미 분석론>에서 합목적성과 관련하여 제시되는 형식은 모두 목적과 관련한 인과적 형식을 의미한다. 합목적성의 형식이 대상의 객관적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합목적성은 하나의 원리로서 자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칸트가 제시하는 합목적성의 규정과도 연결되지 않는다. 이후 제3계기의 후반부에서 칸트는 취미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대상의 형식을 언급하긴 하는데, 이는 ‘합목적성’과 관련한 형식이 아니라 미와 관련하여 대상의 질료적 측면을 배제하기 위해 제시되는 것일 뿐이다.

일반적 합목적성이 대상을 전제된 목적의 개념과 비교함으로써 대상의 합목적성을 판정한다면, 형식적 합목적성이란 쾌감의 원인성을 상정함으로써 대상의 합목적성을 판정한다. **원인성의 상정이란 곧 반성이다.** 이 글의 2.2.에서 살펴본 반성적 판단력의 규정을 상기해보자. 반성이란 “대상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원인으로서의 개념을 찾기 위해 대상을 다른 표상들 혹은 자신의 인식능력과 비교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여기에서는 인식판단과 구별되는 반성판단의 특징으로 인과적 연결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우리는 제3계기에서 제시되는 형식적 합목적성의 규정으로부터 칸트에게 있어서의 반성의 의미를 더욱 구체화 할 수 있다. 반성이란 곧 대상의 가능성을 설명하는 ‘원인성의 상정’이자, 이 원인성을 객관적 개념이 아닌 주관적 조건에서 발견하는 것이다. 반성을 통한 형식적 합목적성의 판정은 대상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원인을 탐색하기 위해 자신의 인식능력 및 인식능력에 근거한 개념³⁶⁾과 비교하고, 쾌감을 통해 대상과 인식능력 및 인식능력에 근거한 개념과의 부합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보자. 형식적 합목적성은 지성을 통해서만 인식될 수 없는데, 원인성이 주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주관 스스로가 원인성을 상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목적 없는, 형식적 합목적성은 반성을 통해 결과로부터 원인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작업을 거침으로써 의식될 수 있다. **형식적 합목적성의 판정은 결과로서의 쾌감에 대한 원인성을 상정해야 하며, 원인성의 상정 자체가 곧 합목적성의 의식이 된다.** 형식적 합목적성은 오직 반성적 판단력을 통해서만 의식될 수 있으며 그러한 한에서 이것은 일반적 합목적성과 구분되는 반성적 합목적성으로, 또한 이에 대한 판단은 인식판단과 구별되는 반성판단으로 규정될 수 있다.

36) 곧 자유.

4. 미적 합목적성의 분석

이 글의 제2장에서는 『판단력 비판』의 서문에서 제시되는 반성적 판단력 및 합목적성의 규정을 살펴보고, 합목적성이 쾌감에 근거하여 자연과 자유를 매개하는 선험적 원리라는 사실을 설명하였다. 제3장에서는 쾌감과 합목적성의 연결을 위한 근거를 찾기 위해 칸트의 인간학에서 제시되는 쾌감의 규정을 살펴보고, 쾌감의 속성을 통해 형식적 합목적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미적 합목적성, 즉 취미판단이 기초하는 형식적 합목적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1) 주관은 미적 쾌감에 대한 반성을 통해 인식능력들의 자유로운 활동이라는 미적 쾌감의 원인성을 발견한다는 사실과 2) 아름다움은 대상의 객관적 성질이 아니라 주관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대상의 합목적성의 형식이라는 사실을 보인다.

칸트가 본격적으로 합목적성을 설명하는 제3계기는 제10절~제12절까지의 전반부와 제13절~제17절까지의 후반부의 두 파트로 나뉜다. 칸트는 **전반부**에서 1) 반성적 판단력 일반이 기초하는 형식적 합목적성의 정의를 제시하고, 2) 취미판단이 형식적 합목적성에 기초한다는 것이 설명한 후 3) 취미판단의 형식적 합목적성에서 원인성이 되는 것은 주관 능력 간의 자유로운 유희라고 주장한다. **후반부**에서는 아름다움이 완전성과 유용성, 매력 및 감동과 구별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아름다움이 대상에 귀속될 수 있는 특징을 주관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대상의 합목적성의 형식으로 제한한다. 이러한 구도는 취미판단이 주관적 원리에 근거한다는 것을 강조한 후, 이와 배치되는 기존의 객관적 미론들, 예컨대 취미가 경험적으로 표준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한 흄의 주장이나, 미가 완전성과 관련한다는 바움가르텐의 주장을 반박하려는 시도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 구도는 독자에게 미적 합목적성을 대상과 관련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 특히 칸트가 “미는 대상의 합목적성의 형식(B61)”이라고 말하며 제3계기를 마무리하는 까닭에, 미적 합목적성은 대상 자체의 합목적적 특징이며, 제3계기의 전반부의 설명은 후반부에서 제시되는 대상의 합목적성의 전제라고 여겨질 위험이 있다. **그러나 칸트는 제10절~제12절에서 취미판단이 형식적 합목적성을 선험적 원리로 삼는다는 것을 명시한다.** 위와 같은 오해를 불식하고, 합목적성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합목적성과 관련한 전반부와 후반부의 논의 모두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4.1.에서는 **미적 합목적성에서의 원인성이라고 할 수 있는 주관의 선험적 합목적성을** 고찰한다. 여기에서는 1) 미적 대상을 마주하여 느끼는 합목적적 쾌감의 원인성으로 주관 능력의 선험적 합목적성이 자리한다는 사실과, 2) 쾌감의 속성에 따라 주관은 반성을 지속함으로써 자신의 자유를 의식하는 데에 도달함을 확인한다. 다

음으로 4.2.에서는 미적 합목적성에서 **대상과 관련하여 언급할 수 있는 조건**을 살펴본다. 미적 합목적성이 주관적 원리임에도 대상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까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를 매력이나 감동, 유용성 및 완전성과 구별하기 위해서이다. 아름다운 조건은 개념을 통해 규정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이를 질료적 자극 및 객관적 합목적성과 구별하며 소극적으로 제시할 수는 있다. 둘째, 취미판단의 선험적 원리를 위한 고유한 영역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대상의 형식적 합목적성이란 대상 자체의 객관적 속성이 아니라 주관의 관계를 통해 얻어진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객관적 미론을 반박하기 위한 근거가 되며, 주관의 선험적 합목적성에 정당한 영역을 확보해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4.3.에서는 비판철학에서 미적 합목적성이 갖는 의의를 살펴본다. 여기에서는 미적 합목적성을 통해 주관은 자연의 대상으로부터 자신의 인식능력의 자유를 발견함에 따라 자연과 자유의 매개라는 합목적성의 과제를 주관적 차원에서 달성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4.1. 미적 합목적성: 미적 쾌감에 대한 반성을 통한 주관적 자유 의식

형식적 합목적성이란 대상을 쾌감에 근거하여 합목적적인 것으로 판정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원인성의 상정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취미판단은 형식적 합목적성에 기초하며, 이 글은 취미판단이 기초하는 형식적 합목적성을 미적 합목적성으로 규정한다. 그렇다면 미적 합목적성의 원인성은 무엇일까? 칸트는 미적 합목적성의 원인성에 주관 능력의 선험적 합목적성이 자리한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대상 자체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험적 능력을 통해 대상의 인식이 가능해지는 것처럼, **취미판단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상이 그 자체로 합목적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능력의 선험적 합목적성에 의해 대상 또한 합목적적인 것으로 판정된다.** 4.1.에서는 대상을 합목적적인 것으로 판정하게 하는 우리의 능력, 즉 주관의 선험적 합목적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주관의 선험적 합목적성을 다음의 순서에 따라 분석한다. **첫째**, 취미판단이 기초하는 합목적성은 개념에 의한 객관적 합목적성이 아니라, 주관의 인식능력간의 관계에 의한 형식적 합목적성이다. **둘째**, 이 주관능력간의 관계란 ‘상상력과 지성의 자유로운 유희’이며, 이것은 미적 합목적성의 선험적 근거가 된다. **셋째** 이러한 능력들의 관계는 쾌감을 불러일으키며, 주관은 쾌감의 속성에 의해 자신의 인식능력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의식하는 데 도달한다.

(1) 우선 첫 번째 사항에 대해 살펴보자. 미적 합목적성은 형식적 합목적성이며, 이것의 원인성은 미적 대상에 의해 인식능력이 규정되는 한에서의 인식능력의 상호관계이다. 취미판단에서 대상은 주관의 인식능력들의 관계에 의해 형식적으로 합목적적인 것으로 판정된다. 이에 대한 칸트의 설명을 살펴보자.

취미판단은 미감적 판단이지 인식판단이 아니고, 그러므로 그것은 대상의 성질에 대한 개념과 이런저런 원인에 의해 대상이 내적으로 또는 외적으로 가능하다는 개념에 관한 것이 아니라, 표상력들이 표상에 의해 규정되는 한에서, 순전히 표상력들의 상호 관계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B35)

칸트의 이 설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합목적성의 규정에서 쾌감의 속성을 배제했던 것처럼, 다시 형식적 합목적성의 규정에서 미적 쾌감의 속성을 배제하고 이를 해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합목적성이란 한 개념에 의해 한 대상이 가능해질 때 개념이 갖는 원인성을 말한다. 칸트는 이 규정에서 개념의 자리에 표상에 의해 규정되는 '표상력들의 상호관계'를 올려놓음으로써 취미판단을 설명한다. 표상력들이란 곧 인식능력, 즉 상상력과 지성을 의미한다. 취미판단은 원인으로서는 표상력들의 상호관계와 결과로서의 미적 대상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것이다. 칸트의 설명에 따르면 취미판단은 미적 대상이 주관의 인식능력을 특정한 상태로 규정하는 한에서, 이 인식능력의 상호관계에 의해 대상을 합목적적인 것으로 판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합목적성은 목적의 개념이 전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목적 없는 합목적성으로, 개념과 관련한 실제적 원인을 통해 대상의 가능성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형식적 합목적성으로 규정된다. 또한 이 합목적성은 대상이 개념과 관련하지 않고 주관의 능력과 관련하여 판정된다는 점에서 주관적 합목적성으로 규정된다.

그런데 이 설명을 형식적 합목적성의 규정과 연결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우선 1) 인식능력들의 관계가 대상의 가능성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문제이다. 합목적성이란 한 대상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으로서는 목적의 개념이나 의지가 갖는 원인성을 말한다. 그런데 취미판단에서 인식능력의 관계는 미적 대상의 가능성을 설명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설명만으로는 왜 미적 대상과 인식능력의 관계가 합목적적인 것으로 규정되는지를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2) 인식능력의 관계가 미적 합목적성의 원인성임에도 불구하고, 칸트는 여기에서 인식능력이 표상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표상이 인식능력을 규정한다고 설명한다는 점이다. 표상이 인식능력을 규정한다는 것은 마치 우리의 인식능력을 통해 대상의 가능성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우리의 인식능력을 규정하고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대상의 가능성’과 ‘대상의 합목적성의 가능성’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취미판단은 대상 자체의 가능성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과의 관계에서 **대상의 합목적성의 가능성**을 설명한다. 일반적 합목적성에서는 개념이 선행하고 이를 근거로 대상의 부합여부를 판정한다면, 형식적 합목적성에서는 쾌감이 선행하고 이 쾌감의 원인성을 설명하는 것이 뒤따른다. 취미판단에서는 무관심하고 무규정적인 동시에 합목적적인 쾌감을 느끼는 것이 가장 선행하며, 이에 따라 주관은 **미적 대상을 마주하여 발생하는 쾌감의 원인**을 탐색한다. 즉 취미판단은 **미적 대상의 가능성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쾌감의 원인성을 상정함으로써 미적 대상의 합목적성의 가능성을 설명하는 것이다.**

미적 대상의 합목적성의 가능성을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미적 대상은 인식능력을 **일정한** 방식으로 활성화시켜야 하며, 이 방식은 주관이 대상을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미적 대상은 개념의 매개 없이 인식능력의 상태를 규정한다. 미적 대상과 인식능력 사이의 직접적 일치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치는 인식능력을 고유한 방식으로 활성화시키는데, 이 방식이 고유하다는 것은 이것이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이 대상을 이해하는 또 다른 타당한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서 미적 대상은 주관의 인식능력에 직접적으로 적합하며, 이러한 점에서 인식능력에 대해 합목적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 미적 대상이 활성화시키는 인식능력의 고유한 관계가 주관에게 쾌감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일반적 합목적성에서는 목적의 개념과 대상의 부합에 의해 쾌감이 발생한다. 그러나 형식적 합목적성에서는 목적의 개념도, 또한 단순 감각적 자극 없이도 쾌감이 발생한다. 이 쾌감이 미적 대상의 형식적 합목적성에 대한 근거가 되기 위해서 이 쾌감은 미적 대상과 관련한 원인성을 가져야 하는데, 미적 대상에 따른 주관의 변화는 오직 인식능력들 간의 관계뿐이다. 따라서 미적 대상을 마주하여 돌입하는 인식능력의 고유한 관계는 주관에게 쾌감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그래야만 주관은 대상으로부터 개념의 매개 없이 느껴지는 직접적 쾌감에 의해, 마치 대상의 합목적성으로 인해 쾌감을 느끼는 것처럼 의식할 수 있다.

정리하면 미적 합목적성의 원인성은 규정적 개념으로부터 벗어난 주관의 인식능력들의 특정한 관계이다. 표상이 개념의 매개 없이 인식능력들의 관계를 규정하는 고유한 방식은 주관에게 쾌감을 불러일으킨다. 주관은 이 쾌감을 통해 미적 대상과 무매개적 일치를 느끼고 대상을 합목적적인 것으로 **느낀다**. 취미판단에서 주관은 자신의 인식능력에 근거하여 대상의 합목적성을 판정하며, 이에 따라 주관의 인식능력과 미적 대상은 형식적으로 합목적적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2) 미적 대상에 의해 규정되는 인식능력의 관계가 쾌감을 불러일으키고 이 쾌감이 대상을 합목적적인 것으로 의식하게 한다면, 이 관계는 무엇이며 이것이 어떻게 쾌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일까? 이제 취미판단의 합목적성과 관련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미적 대상이 인식능력을 규정하는 고유한 방식을 통해 미적 반성의 의미를 살펴보고, 미적 합목적성의 선형성의 근거를 확인해보자.

미적 대상이 인식능력을 규정하는 방식은 상상력과 지성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유희하는 상태에 돌입하도록 하는 것이다.³⁷⁾ 미적 대상은 인식능력과 직접적으로 일치함으로써 인식능력을 지성의 법칙으로부터 해방시키는데, 이에 따라 상상력과 지성은 개념의 제한이 없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각자의 순기능을 발휘한다. 인식판단에서 상상력에 의해 포착된 직관이 개념 아래에 포섭된다면, 취미판단에서 상상력은 개념의 제한 없이 대상의 직관을 포착하는 활동을 자유롭게 지속하며, 지성은 상상력이 포착한 직관을 개념으로 규정하지 않고 이에 대한 더욱 더 보편적인 개념을 찾아 비교하고 대조한다. 상상력은 포착된 직관을 지성에 제시하고, 지성은 그에 대한 더욱 보편적인 것을 상상력에 제시하며 서로의 활동을 강화시킨다.

상상력과 지성의 활동의 **합목적적 지속**에 의해 주관은 쾌감을 느낀다. 상상력과 지성의 유희는 하나의 활동이 다른 하나의 활동을 촉진시키는데, 서로가 서로의 활동을 더욱 강화하며 지속시키고, 이를 통해 쾌감의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 상상력과 지성은 하나가 다른 하나의 활동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관계는 합목적적이며, 주관은 쾌감의 상태에 머무른다는 점에서 합목적적 상태에 놓인다. 이에 따라 주관은 목적의 개념이나 감각적 자극 없이 오직 자신의 인식능력의 자유로운 활동에 근거하여 쾌감을 느낀다. 즉 이 쾌감은 자유 안에서 유희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인 것이다.

상상력과 지성의 자유로운 유희는 곧 미적 반성이다. 칸트는 제1서문에서 반성적 판단력을 판정능력으로 설명하고³⁸⁾, <미 분석론> 제2계기에서 판정의 활동으로 상상력과 지성의 자유로운 유희를 제시한다. 따라서 인식능력의 자유로운 유희는 반성의 활동과 동일시 될 수 있는데, 상상력이 대상의 직관을 포착하면 지성은 이에 알맞은 더욱 더 보편적인 것을 탐색한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반성의 규정과도 연결된다. 앞에서 우리는 반성이 대상을 가능하게 한 원인을 주관적 조건에서 찾는

37) B29.

38) “반성한다는 것은 주어진 표상들을 다른 표상들과 또는 자기의 인식능력 및 그에 가능한 개념과 관련해서 비교하고 대조하는 것이다. 반성적 판단력은 사람들이 판정능력이라고도 부르는 것이다.” XX212.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미적 반성을 통해 주관은 합목적적 쾌감의 원인을 탐색하는데, 이 쾌감이 주관에게 아무런 개연성 없이, 자연의 인과법칙으로부터도 실천적 법칙으로부터도 독립적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대상에 마주하여 주관은 원인 모를 쾌감을 느끼고 도대체 무엇이 이러한 무규정적 쾌감을 불러일으키는지에 대해 반성한다. 반성 속에서 주관은 미적 대상과 주관 사이에 거리가 있음을, 따라서 쾌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미적 대상 자체가 아니라 주관의 반성활동이었음을 의식한다. 즉 주관은 쾌감의 원인을 찾기 위해 반성하지만, 반성을 통해 의식하는 것은 반성활동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주관의 인식능력인 것이다.

그런데 이 관계는 한 대상을 아름다운 대상이라고 규정함에서 쾌의 감정과 결합되고, 이 쾌감은 취미판단에 의해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타당한 것으로 언명되는 것이다. (B35)

미적 대상과 마주한 상상력과 지성의 자유로운 유희는 쾌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주관은 이 쾌감에 근거하여 대상을 아름다운 것으로 규정한다. 상상력과 지성의 자유로운 유희는 <미 분석론>의 제2계기에서 미적 쾌감의 선형적 근거로서 제시된 바 있다. 여기에서 미적 쾌감은 감관에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상상력과 지성의 활동이라는 선형적 근거에 기반을 두기에 만인에게 보편적으로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상상력과 지성의 자유로운 유희는 미적 합목적성과 관련해서도 그것의 선형성에 대한 근거가 된다. 미적 대상으로부터 발생하는 합목적적 쾌감은 대상이 직접 감관을 자극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미적 대상과 마주했을 때 주관의 인식능력들이 합목적적으로 지속함으로써 발생한다. 주관은 미적 대상을 합목적적이라고 판정할 수 있는 근거를 ‘상상력과 지성의 자유로운 유희 및 이와 결합된 쾌감’이라는 형태로 자신 안에 이미 갖고 있다. **쾌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합목적적인 것이라면, 주관은 스스로의 원인성에 의해 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주관의 실존 그 자체로 합목적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 미적 대상의 합목적성은 경험적이고 감각적인 속성과 관계없이 오직 이 주관 능력 간의 합목적적 관계에 의해 판정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취미판단이 경험적 원리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 능력들 사이의 합목적성이라는 선형적이고 고유한 원리에 근거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그러므로 일체의 (객관적인 또는 주관적인) 목적 없이, 대상을 표상함에 있어서 주관적 합목적성만이, 따라서 그에 의해 우리에게 대상이 주어지는 표상에 있어 합목적성의 순전한 형식만이,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는 한에서,

우리가 개념 없이 보편적으로 전달가능한 것이라 판정하는 흡족을 형성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취미판단의 규정근거를 이룰 수 있다. (같은 곳)

칸트의 정리에 따르면, 취미판단은 대상을 표상함에 있어 대상이 주관의 인식능력을 활성화시킨다는 점에서 그것을 형식적으로 합목적적인 것으로 규정하며, 이 형식적 합목적성과 결부된 쾌감만이 취미판단의 규정근거를 이룬다. 미를 판정한다는 것이란 곧 대상을 인식능력과 관계하여 형식적으로 합목적적인 것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미란, 칸트가 제3계기의 말미에서 설명하듯, 대상의 합목적성의 형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3) 지금까지 살펴본바, 미적 대상은 인식능력의 활동을 규정하고, 주관은 이 활동에 의해 발생한 쾌감을 통해 대상을 합목적적인 것으로 판정한다. 이러한 설명은 미적 합목적성의 원인성이 무엇인지, 즉 취미판단이 무엇에 근거하여 한 대상의 아름다움을 판정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그러나 미적 합목적성에 관하여 해명해야 할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남아 있다. 이 사실은 인식 일반으로 고양되는 미적 쾌감의 고유한 속성으로서, **미적 대상에 대한 반성을 지속시킴으로써 주관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자유로운 인식능력을 의식하게 하는 쾌감의 역할**이다. 앞의 논의에서 인식능력의 활동이 대상에 대한 합목적적 쾌감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설명했다면, 여기에서는 오히려 쾌감이 인식능력의 지속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주관은 자신의 인식능력의 자유로움을 의식하게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자 한다.

주관의 인식능력들의 유희에서 순전히 형식적인 합목적성의 의식은 대상이 주어지는 표상에 있어서 쾌감 자신이다. 왜냐하면, 이 의식은 주관의 인식능력들을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주관 활동의 규정근거를 함유하고, 그러므로 특정한 인식에 국한돼 있지 않은, 인식 일반에 대한 (합목적적인) 하나의 내적 원인성을, 그러니까 미감적 판단에서 표상의 주관적 합목적성의 순전한 형식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B37)

취미판단에서 형식적 합목적성의 의식에는 대상의 아름다움과 주관의 자유로움에 대한 의식을 모두 포함한다. 한 대상이 아름답다는 것은 그 대상이 주관의 능력을 자유롭게 유희하도록 규정했다는 것이지만, 이것이 가능한 더욱 근본적인 원인은 주관 자체의 인식능력이 자유로운 데에 있기 때문이다. 형식적 합목적성의 의식이란 곧 반성을 통해 미적 쾌감의 원인성이 주관의 인식능력의 자유로운 활동성임을 의식하는 것이며, 이는 주관의 인식능력의 자유로움을 의식하는 것과 같다. 물론 이

자유는 무한대로 주어진 초월적 개념으로서의 자유가 아니라, 소극적 의미에서의 자유이다. 즉 이 자유는 기계적 법칙에 대한 종속의 반대말로서, 인식법칙으로부터의 자유이자 당위로부터의 자유이다. 그러나 이 자유는 **주관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자유이다**. 왜냐하면 누군가로부터 주어지는 자유, 개념으로서 주어지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닌 제한된 자유일 것이며, 자신의 진정한 자유로움은 오직 스스로가 느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유의 감정은 미적 쾌감을 통해 얻어진다. 이러한 까닭에 칸트는 “주관의 인식능력들의 유희에서 순전히 형식적인 합목적성의 의식”, 즉 주관의 인식능력의 자유로움의 의식을 다시 쾌감과 동일시한다. 이것은 나의 자유가 나에게 알려지는 방식은 개념이 아닌 쾌감을 통해서임을 의미한다.

자유가 주관에게 쾌감을 통해서 의식된다면 이는 곧 자유가 주관의 근본적인 목적임을 의미한다. 우리가 인식능력의 자유로운 유희상태에서 쾌감을 느끼는 것이 **이 활동이 자유라는 주관의 목적과 부합하기 때문이다**. 주관은 미적 쾌감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자신의 내부에 자유의 의식, 자유의 확신이라는 목적이 있음을 발견한다. 취미판단에서 의도와 목적은 아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견된다. 취미판단은 우리에게 자유라는 목적이 있음을 일깨우고, 자유를 **느낌으로써** 주관이 진정 자유롭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제공한다. 이러한 설명을 통해 우리는 미적 대상에 자유를 의식하고자 하는 목적이 전제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쾌감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자신 내부에 자유의 의식이라는 목적이 있음을 발견한다는 것을 설명함으로써 Allison이 제기한 문제, 즉 쾌감의 의도성과 목적 없는 합목적성이 양립할 수 없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주관은 자신의 자유로운 반성이 미적 쾌감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을 의식하고, 이 의식은 미적 쾌감을 지속하기 위해 다시 인식능력들의 자유로운 반성을 지속적으로 **활성화** 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이 점에 대하여 칸트는 쾌감을 통한 형식적 합목적성의 의식이 주관의 인식능력들의 활성화 및 인식 일반에 대한 내적 원인성을 함유한다고 설명한다. 대상을 통해 느낀 쾌감의 원인을 우리의 인식능력에서 찾았으므로, 쾌감을 유지하기 위해 인식능력의 활동을 지속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다시 **미적 쾌감의 속성이 원인이 되며, 인식능력의 자유로운 유희는 결과**가 된다. 이 미적 쾌감에는 자유의 상태에 머물고 싶은, 자신의 자유를 확인하고 싶은 의도가 담겨있다. 이 의도는 미적 대상에 대한 어떤 **외적 의도나 목적 없이, 그저 자신의 상태를 보존하고 갱신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칸트는 미적 쾌감이 인식일반에 대해 갖는 원인성을 강조하며 제3계기의 전반부를 마무리한다.

이 쾌감은 자신 안에 원인성을, 곧 표상 자신의 상태 및 인식력들의 용무

를 그 밖의 의도 없이 보존하는 원인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아름다운 것의 관조에 **머무른다**. 왜냐하면 이 관조는 스스로를 강화하고 스스로를 재생산하기 때문이다. (같은 곳)

쾌감의 속성을 통한 원인과 결과의 반전 속에서 주관의 상태는 그 자체로 스스로가 원인이자 결과인 존재, 즉 자기 자신의 목적에 의해 자신의 상태를 지속하고 보존하는 존재로 거듭난다. 이러한 쾌감의 지속 안에서 주관은 자신의 인식능력이 지성의 법칙에 종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유희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자유로움이 아름다움의 판정을 가능하게 했다는 사실에 대해 즐거움을 느낀다. 이 느낌은 단순 감각적 차원의 즐거움이 아니라 자기동일성보다 한층 더 깊은 자기의식, 즉 지성과 감성, 자연과 자유가 결합된 존재로서의 한층 더 깊은 자기의식을 포함하는 즐거움이다. 칸트에게 있어 최초의 자기의식은 내감을 통해 획득하는 단순 자기동일성으로서의 자기의식으로, 이는 시간이라는 감성의 선형적 형식을 통해 각각의 다른 시점에 동일하게 존재하는 사유의 주체를 의식하는 것이다. 이 주체는 개인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특성이 사상되고 오직 '나'라고 부를 수 있는 동일성을 말한다. 이러한 자기의식은 미적 쾌감을 통해 더욱 심화되고 구체화된다. 주체는 미적 쾌감을 통해 자기 자신이 자유라는 목적에 근거한 존재임을 의식하며, 이를 느낀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자기의식은 단순히 '사고하는 나'가 아니라 '자유에 근거하여 존재로서의 나'이며, 이 의식은 지성뿐만 아니라 지성과 감성 모두를 통해서 획득된다. 따라서 주관은 미적 쾌감 안에서 지성적 측면과 감성적 측면의 조화를 이룬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연과 자유의 매개를 주관적 차원에서 달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쾌감의 원인성을 통해 자유를 의식하고자 하는 자신의 목적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주관의 선형적 합목적성을 의식하고 이를 보존하는 것이 칸트가 제시하는 인식 일반으로서 미적 쾌감의 고유한 기능이다.

따라서 취미판단은 단순히 대상에 대한 합목적적 쾌감을 느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음미하고 관조함으로써 주관 내부의 합목적적 관계를 지속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 이러한 주장에는 주관이 이 자기의식에 근거하여 **존재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겨있다. 주관에게는 미적 쾌감을 순간적으로 경험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적 경험의 반경을 넓혀갈 것이, 달리 말해 자연 자체를 합법칙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더불어 합목적적으로 사유할 것이 요구된다. 이는 곧 인간이 '기능하는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로 존재해야 함을 뜻하며, 이를 통해서 진정한 자율적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2. 매력과 감동 및 객관적 합목적성과 구별되는 미의 특성

칸트는 제10절의 전반부에서 아름다움을 주관의 인식능력에 근거한 미적 합목적성으로 설명한 후, 후반부에서 이를 대상의 질료적 특성 및 객관적 합목적성과 분리한다. 칸트가 이러한 구도를 통해 서술하는 까닭은 1) 취미판단을 순수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눔으로써 주관의 질료적 자극에 일부 근거한 것이 아닌 순전히 스스로의 자유에 근거한 순수한 취미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며, 2) 아름다움을 완전성의 개념으로 해소하려고 했던 바움가르텐과 같은 학자들의 이론을 반박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몇몇 연구자들은 이 부분, 특히 취미판단이 대상의 질료가 아닌 형식을 판단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부분에 주목하여 형식적 합목적성이 마치 대상의 객관적 속성인 것처럼 해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하여 후반부에서 제시되는 칸트의 설명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먼저 칸트는 **취미판단이 대상의 질료적 특성이 아닌 형식적 특성을 판단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주장한다.** 미감적 판단은 질료적 미감판단과 형식적 미감판단으로 나뉜다. 질료적 미감판단이란 회화의 색이나 음악의 음색같이 대상의 질료적 특성에 대한 것으로, 감동과 매력과 같이 경험적인 선호도나 자극에 의해 내려지는 판단이다. 반면 형식적 미감판단이란 곧 취미판단으로 상상력이 질료를 다루는 방식 자체를 규정근거로 갖는 판단을 말한다. 칸트의 설명에 따르면, 사람들은 매력이나 감동을 미와 혼동하고, 이러한 것들이 미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매력이나 감동은 대상의 질료적 특성으로 우리에게 감각적 자극으로 주어지는바, 보편적 쾌감을 요구하는 취미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예컨대 회화의 색이나 음악의 음색은 대상의 형식을 전달하는 질료일 뿐으로, 보라색이 쾌적하다거나 바이올린의 음색이 쾌적하다는 판단은 취향의 문제이지 보편타당한 흠족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판단은 인식능력의 유희에 의한 판단이 아닌 감관에 의한 판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상의 질료는 그 자체로 아름답다고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취미판단이 대상의 질료적 특성에 대한 판단과 뒤섞일수록 그것은 순수한 취미판단으로부터 멀어진다.

형식적 미감판단이란 대상의 형식에 의한 쾌적함을 판단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형식적 미감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색채나 음색이 아닌 선묘나 악곡이다. 선묘나 악곡에서 느껴지는 쾌적함은 모든 사람들의 감각방식에서 동일한데, 이는 감관에서의 쾌적함이 아닌 인간의 보편적 능력인 상상력의 포착활동에 의한 쾌적함이기 때문이다. 칸트는 이를 “대상의 표상이 결합하는 형식”이자 인상들의 규칙적 유희“(B41)라고 설명한다. 즉 취미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상상력이 질료를 다루는 방

식 그 자체이며, 이러한 대상에 한해서 우리의 상상력은 대상에 대한 보편타당하고 순수한 취미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대상의 형식과 합목적성의 형식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 매력 및 감동과 관련한 이 논의에서 합목적성은 주변부로 물러나있다. 이 논의는 오히려 취미판단의 보편성을 다루는 제2계기와 연결된다. 제2계기에서 칸트는 감각적 쾌락과 취미의 쾌감을 구별하고 취미가 반성에 기초한 쾌감임을 설명한다. 여기에서와 마찬가지로 매력과 감동은 경향성에 의한 것으로, 이는 아름다움이 아니며 오히려 취미판단의 순수성, 보편타당성을 해친다는 것이 이 논의의 요점이다. 주관은 대상의 질료적 측면을 배제한 채 형식적 측면만을 취미판단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데, 그 까닭은 이 형식이 주관으로 하여금 반성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설명은 아름다움에 대한 규정적 설명이 아니라 부정적 설명으로, 이를 ‘아름다움이란 질료적 측면을 배제한 대상의 형식’이라고 정리할 수 없다. 칸트는 여기서 대상의 질료적 특성으로부터 도출되는 쾌감을 제외할 뿐이지 특정한 형식이 아름다움이라고 규정하거나, 아름다움이 대상의 형식에 있다고 설명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Crawford나 Ameriks와 같이 이 규정 자체를 대상의 특정한 속성으로 귀속시키고자 하는 연구들은 칸트의 미론을 객관주의적인 미론으로 왜곡시키는 격이 된다. 만일 아름다움이 대상의 형식으로 규정될 수 있다면 이러한 형식은 다시 특정한 형식으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대상의 모든 형식이 아름다움으로 규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칸트가 적극적으로 비판한 객관적 미론과 구별되지 않는다. 설령 이들이 객관적 미론과의 차이점으로 ‘개념으로 규정할 수 없음’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아름다움을 대상의 속성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마치 흄의 주장처럼 아름다움을 경험적으로 표준화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다.

이렇듯 미는 경험적인 만족이 섞이지 않은 한에서 오직 대상의 형식적 특성만을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때 순수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칸트는 순수하지 않은 취미판단, 즉 매력이나 감동에 뒤섞인 취미판단이 실제로 종종 일어나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³⁹⁾ 그럼에도 칸트가 순수한 취미판단과 순수하지 않은 취미판단을 구별하고 취미판단의 순수성을 강조한 까닭은 무엇일까? 칸트에 있어 취미판단은 1) 주관의 이성적 능력을 일깨운다는 점에서, 2) 보편타당한 감정의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순수하지 않은 취미판단은 이성적 능력이 아닌 감각적 능력에 일부 근거하며, 그런 만큼 보편타당성 또한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칸트는 취미판단이 실제로 감각적 자극에 뒤섞여 일어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상에 대해 무관심적 태도를 요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상에 대한 순수

39) B39.

한 취미판단을 내릴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칸트는 미를 객관적 합목적성과 비교하며, 취미판단이 객관적 합목적성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 근거들에 의거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객관적 합목적성이란 잡다한 것을 하나의 목적과 관계시킴으로써 인식되는 것을 말하며, 외적 합목적성(유용성)과 내적 합목적성(완전성)으로 나뉜다. 일단 미가 외적 합목적성이 아니라는 사실은 명확하다. 취미판단이 외적 합목적성에 근거한 판단이라면 이는 곧 미가 대상의 유용성과 같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취미판단은 개념을 통해 쾌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대해 직접적으로 쾌감을 느끼는 것이므로, 외적 합목적성이 취미판단과 무관하다는 것은 자명한 바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객관적 내적 합목적성(완전성)이다. 칸트는 마치 바움가르텐을 염두에 둔 것처럼 완전성이 줄곧 미와 혼동되었음을 지적하며 “미가 완전성의 개념으로 해소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B45)”고 말한다. 객관적 내적 합목적성이란 잡다한 것이 그 목적의 개념에 부합하느냐의 여부를 말하며 이와 관련한 미란 인간의 미, 교회의 미 등과 같이 잡다가 그 목적을 질적/양적으로 충족시키는가의 여부를 통해 쾌적함을 얻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는 대상의 개념에 근거한 흡족이므로 표상으로부터 개념의 매개 없는 만족을 요구하는 취미판단의 쾌감과 구별된다. 예컨대 교회의 아름다움을 생각해보자. 만일 우리가 그것이 교회라는 것을 잊은 채 그 대상에 대해서만 판단할 때에는 그 형상이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은 반면, 교회라는 목적을 염두에 두었을 때 그것이 교회에 어울리는 엄숙함에 부합하고 장엄함을 자아낸다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 아름답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 형상 자체가 미를 표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쾌감을 느끼게 되는 것일 뿐이다. 즉 교회의 형식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느끼는 만족감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판단은 ‘이 교회는 완전하다’ 혹은 ‘이 교회는 엄숙하다’와 같은 판단으로 대체되어야 할 것이며, 아름다움으로 규정될 수 없다.

이렇듯 완전성은 미의 등가물이 아니다. 그러므로 미는 완전성의 혼란된 개념이고 인식은 완전성의 명료한 개념이라는 바움가르텐의 주장 또한 잘못된 것이다. 취미판단은 미감적 판단으로서 인식판단과는 종적으로 구별되며, 그 종류에 있어서 유일한 것이다. 우리가 대상에 대해 아름다움을 느낄 땐 대상의 객관적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는다. 취미판단은 오직 대상을 다루는 표상들의 규정작용에서 합목적적 형식만을 쾌감을 통해 의식할 따름으로, 이를 통해서는 대상의 형식을 상상력으로 포착하는 활동의 안락함만을 얻을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이러한 판단은 도덕적 판단과도 별개이다. 대상이 아름답다는 것은 그것이 무엇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형식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적의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일 뿐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보자. 미는 대상을 목적의 전제 없이 합목적적으로 느끼는 것과 관계한다. 아름다운 대상을 마주하여 쾌감을 느끼는 것은 대상이 합목적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합목적성은 목적의 표상이 전제된 것이 아닌 까닭에 유용성이나 완전성의 개념과 구별된다. 즉 대상의 아름다움이 무언가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쾌감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아니며, 아름다움에 대한 객관적인 조건을 만족시킴으로써 느끼는 쾌감 또한 아니다.

취미판단에서 대상은 그것이 주관의 인식능력을 활성화시킨다는 점에서 쾌를 불러일으키며, 그러한 한에서 합목적적이다. 즉 대상의 합목적성이란 그것 자체의 객관적 성질이라기보다는 주관과의 관계를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취미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대상의 객관적 특성은 규정될 수 없고, 오직 그것이 주관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형식적으로 합목적적인 것으로 판정될 수 있을 뿐이다.

4.3. 미적 합목적성의 비판철학 내 체계적 위상

미적 합목적성이란 대상을 마주하여 인식능력들의 자유로운 유희에 돌입하고, 이로 인해 느끼는 쾌감을 통해 대상 및 주관을 합목적적인 것으로 판정하는 것이다. 취미판단에서 대상은 그것이 주관의 인식능력을 자유로운 유희의 상태로 규정한다는 점에 있어 주관의 능력에 대해 합목적적이다. 또한 주관은 인식능력들이 서로의 활동을 강화시키며 쾌감을 불러일으키고, 다시 쾌감이 인식능력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합목적적이다. 취미를 판정하는 것은 곧 자신의 능력들 사이의 합목적성을 통해 대상을 형식적으로 합목적적인 것으로, 즉 아름다운 것으로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의 아름다움을 판정함에 있어 쾌감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바, 이는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쾌감은 대상을 **합목적적인** 것으로 판정한다. 쾌감은 욕구의 충족이나 수단의 획득을 통해 느끼는 것으로, 목적의 달성과 관련한다. 미적 대상과 주관의 일치하는 개념이 아닌 쾌감을 통해 알려지는바, 주관은 이 쾌감에 근거하여 대상을 전제된 목적이 없이도 합목적적인 것으로 판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둘째**, 자신의 상태를 지속하고자 하는 쾌감의 속성은 주관으로 하여금 반성을 지속시킴으로써 인식일반으로서의 자기의식에 도달하도록 한다. 주관은 대상을 마주하여 쾌감을 느끼고 자신의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쾌감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에 대해 반성한다. 반성을 통해 주관은 대상 자체가 아니라 자유롭게 활동하는 자신의 인식능력이 쾌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의식하고, 이러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합목적적이라는 것을 판정한다. 즉 자유로운 이성적 존재로서 자기의식에 도달하는 것이다. 셋째, 쾌감은 아름다움의 판정의 보편타당성을 보증하는 역할을 한다. 취미판단에서의 형식적 합목적성은 객관적 개념으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합목적성을 알릴 수 있는 또 다른 징표를 필요로 한다. 쾌감이 객관의 실존에 대해 무관심하며 반성의 활동에 근거할 때, 우리는 이 쾌감에 근거하여 이 판정이 누구에게나 보편타당하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적 합목적성은 『판단력 비판』에 주어진 과제, 즉 자연과 자유의 매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일까? 반성적 판단력에 주어진 과제는 자연에서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자연과 자유를 매개하는 것이다. 이 과제는 미적 합목적성을 통해 자연의 특수한 것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주관의 자유로운 인식능력을 의식하는 형태로 달성된다. 즉 이 원리는 자연의 특수한 것과 주관적 자유를 연결하는 것이다. 주관의 합목적성을 통해 의식하는 이 자유는 개념으로서의 자유가 아니며, 주관의 외부에 있는 객관적인 것 또한 아니다. 이것은 주관 내부에 자리하는 이성의 본질로서의 자유, 즉 인식능력들의 자유로운 활동성이다. 주관은 법칙에 종속되지 않은 자신의 자유로운 인식능력을 의식함으로써 이 자유에 근거하여 자연에서 도덕법칙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이때의 도덕법칙은 주관의 자유에 근거하기 때문에, 도덕법칙의 실행은 당위의 실행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의 실현이 된다. 즉 미적 합목적성은 주관으로 하여금 자신의 자유로운 인식능력을 의식하도록 함으로써 자연에서 진정한 자유를 실현하도록 한다.

미적 합목적성은 비판철학에서 다음의 네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 미적 합목적성은 판단력의 원리인 자연의 합목적성의 선험적 타당성을 입증한다. 『판단력 비판』에서는 주관의 감정을 규정근거로 삼는 합목적성의 원리가 경험적 타당성이 아닌 선험적 타당성을 갖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칸트는 취미판단이 주관 능력의 선험적 합목적성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미적 대상을 마주하여 느끼는 쾌감이 주관의 이성적 자유의 의식에 의한 쾌감임을 설명한다. 즉 쾌감이 이성적 능력과 결부되어, 이성의 활동과 함께 균형을 이루며 하나의 선험적 능력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는 것이다. 미적 합목적성은 단순 감각적 쾌감과 구별되는, 이성의 능력과 조화된 쾌의 감정을 제시함으로써 반성적 판단력의 원리가 쾌감에 근거하면서도 선험적으로 타당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둘째, 미적 합목적성은 ‘자유’라는 이념에 타당성을 부여한다. 주관의 합목적성은 인식능력들의 자유로운 유희를 통해 지성법칙의 근거에 이성의 자유가 자리한다는 것을 확인시킨다. 또한 미적 합목적성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인식능력들의 이 자유

로운 활동으로부터 쾌감을 느낀다는 사실을 통해 주관의 자유에 보편적 타당성을 부여한다. 즉 자유의 타당성의 근거를 주관의 능력에 근거한 보편성으로부터 구하는 것이다. 이로써 자유의 이념을 전제하였던 도덕법칙의 실행과 자연 체계의 완성 또한 정당성을 얻게 된다. 실천이성의 관점에서 도덕법칙은 당위가 아닌 진정한 자연의 실현이 되며, 이론이성의 관점에서 자유의 요청에 대한 타당성을 부여받고, 자유에 근거하여 자연을 표상할 근거를 마련한다. 즉 미적 합목적성은 자유에 대한 타당성의 근거를 주관의 보편적인 능력에서 제시함으로써 자유에 타당성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자유에 근거한 도덕법칙의 실현과 자연 체계의 완성을 가능하게 한다.

셋째, 미적 합목적성은 칸트가 이성비판을 통해 밝히고자 했던 ‘주관성’의 본질을 규명한다. 합목적성이 주관적이라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객관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의 타당성을 주관의 보편적 능력으로부터 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합목적성의 근거가 되는 주관의 능력이란 이성의 자유로움을 바탕으로 그 안에서 감성적 능력의 개별성과 이성적 능력의 보편성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를 설명함으로써 칸트는 이성의 보편성뿐만 아니라 감성적 능력의 특수성, 개별성 또한 보편타당성의 근거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오히려 이성적 능력과 감성적 능력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지성으로서의 이성적 능력보다 더욱 더 깊은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이것은 칸트가 이성비판을 통해 밝히고자 했던 주관성으로서, 저마다의 자유에 근거하여 느끼고, 판단하고, 실행하는 자율적 주체를 말하며, 주관성의 본질은 미적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주관에게 분명하게 의식된다.

넷째, 목적론적 판단력을 준비시킨다. 미적 합목적성을 통해 정당성을 부여받는 자유는 주관적 차원에서의 자유이기 때문에 이 자유를 통해서는 자유에 근거한 자연체계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하자면 주관의 합목적성을 통해서 자연과 자유의 매개가 객관적으로 완결되는 것은 아니다. 자연과 자유의 매개의 완성, 즉 자유에 근거하여 자연을 표상하는 것은 목적론적 판단력을 통해 가능해진다. 미적 합목적성은 합목적성의 원리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고, 주관 안에서 자연과 자유의 연결을 실현함으로써, 자유에 바탕을 둔 자연을 표상할 수 있는 근거를 자신 안에 마련한다. 이에 따라 목적론적 판단력은 그 원리의 정당성에 대한 검증의 절차 없이 자유에 근거한 자연체계의 완성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우리는 **인간에게 있어 아름다움을 판정하는 것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대상의 아름다움을 판정한다는 것은 곧 주관의 자유로운 이성적 존재로서의 자기의의식에 도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름다움에 대

한 판단은 곧 주관 자신의 합목적적이고 자유로운 능력에 대한 판단이다. 즉 이 판단은 내가 이 대상을 아름답다고 판정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자유로운 인식능력을 가졌다는 사실에 대한 것이다. 취미판단을 통해 주관은 지성법칙에 머무르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한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의식하고, 자기 안에 목적을 지닌 진정한 자유롭고 개별적인 존재로 재탄생한다.

둘째, 주관은 아름다움을 판정함으로써 감성적 능력과 이성적 능력의 통합을 이룬다. 감성과 이성은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하며 각각 인간의 서로 다른 두 측면을 대변한다. 감성적 능력은 자연 세계 안에서의 인간의 유한성을, 이성은 감성적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인간의 열망을 함축한다. 이러한 인간의 두 측면을 통합하는 것은 인간이 자율적 주체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자연과 자유의 매개라는 과제는 동시에 인간의 감성적 능력과 이성적 능력을 통합하여 하나의 통일된 주관성을 표상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취미판단을 통해 주관은 감성적 능력의 원인을 이성의 활동에서 발견하고, 이성의 활동을 다시 감성적 능력을 통해 의식함으로써 이 두 능력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또한 단순 감각적인 것이 아닌 이성에 근거한 쾌감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쾌감을 제시하여, 주관이 자신의 이성과 감성의 조화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행위 할 것을 요청한다. 감정을 수반하는 보편적 이념, 예컨대 인류애, 공감, 연민 등에 의한 판단은 이성의 기계적 판단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정리하면 취미판단은 주관으로 하여금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이루고 이를 통해 객관보다 더욱 보편적인 주관성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5. 결론

이 글은 쾌감의 성질에 주목하여 미적 합목적성을 분석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이에 따라 이 글은 쾌감 자체의 속성에 주목하여 합목적성과 쾌감을 연결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삼았다. 본문에서 확인한 쾌감과 합목적성의 연관성에 대해 정리해보자. 칸트는 본디 목적의 달성이 쾌감을 수반함을 지적한다. 즉 합목적성은 그 자체로 쾌감과 결부되어있는 것이다. 나아가 쾌감 자체의 속성을 들여다보면, 쾌감을 느끼는 것은 그 자체로 자신의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내적 목적을 표상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 글에서는 쾌감의 이러한 성질에 근거하여 취미판단이 근거로 삼는 형식적 합목적성의 가능성을 설명하였다. 주관은 미적 대상으로부터 쾌감을 느끼고 목적의 전제가 없더라도 오직 그것이 쾌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대상을 합목적적인 것으로 판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미적 대상으로부터 합목적적 쾌감을 느끼는 것만이 취미판단의 전부가 아니다. 취미판단은 반성판단일 까닭에 여기에서 주관은 반성을 통해 미적 쾌감의 원인을 상정한다. 미적 쾌감의 원인은 두 가지로 설명된다. 첫째, 먼저 미적 대상이 쾌감의 지속을 가능하도록 인식능력의 활동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미적 대상은 주관의 인식능력에 대해 합목적적인 것으로 판정된다. 둘째, 주관의 능력 자체가 외적 자극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자유로움에 근거하여 유희의 즐거움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관의 능력은 아무런 자극이나 목적 없이 서로가 서로의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쾌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그 자체로 합목적적인 것으로 판정된다. 자연의 특정한 대상과 주관의 선형적 합목적성은 모두 미적 쾌감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미의 판정에는 대상의 합목적성뿐만 아니라 주관의 능력 자체의 자유로움에 대한 의식을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설명은 취미판단에서 칸트가 설명하는 ‘대상의 합목적성의 형식’이 대상 자체의 성질이나 객관적 합목적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의 능력에 근거하여 하나의 판단을 형식적으로 합목적적인 것으로 판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칸트는 아름다움을 하나의 내적 원리로 설명함으로써 인간이 향유할 수 있는 가치란 궁극적으로 주관의 내부에 자리함을 암시한다. 아름다움이라는 주관적 원리를 통해 이성의 통합이 가능하다는 것은 곧 주관의 고유한 원리를 갖는 것이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궁극의 지점이라는 것을 뜻한다. 이는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인간의 궁극적인 모든 이념들, 가령 도덕이나 행복, 사랑 등에도 모두 해당한다. 인간은 행복, 사랑, 인간다움 등의 가치 모두를 객관적 조건이 아닌 주관에 근거를 두어 그

타당성을 구해야 하며, 그 가능성을 일깨우는 것이 아름다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는 칸트가 『판단력 비판』에 할당한 ‘인간은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갖는다. 인간이 미적 쾌감을 느낀다는 것은 곧 우리의 능력이 그 자체로 합목적적이고, 어떤 이유나 수단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 정당하다는 것과, 자연 또한 이러한 우리의 합목적성에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스스로의 무한한 자유에 비추어 자연의 현상 아래의 무한성을 쾌감을 통해 의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희망할 수 있다. 즉 아름다움은 비록 우리의 개념적 인식이 현상을 벗어날 수 없을지라도, 현상에 머무르지 않고 대상의 본질에 조금 더 다가가고자 하는 희망에 주관적 타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 글은 칸트 미학에서 쾌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이를 합목적성 및 자유의 개념과 연결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아름다움을 판정하는 주관적 미적 쾌감을 통해 주관적 자유를 의식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이것은 칸트 미학의 입체적 해석을 위한 하나의 시도이다. 즉 순수이성, 실천이성, 목적론으로 이어지는 비판철학의 흐름에서 한 걸음 물러나 독립적으로 연구되던 칸트의 미학을 앞으로 꺼내고, 자유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칸트의 미학을 재해석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칸트의 미학에서 상대적으로 경시되었던 미적 합목적성의 정당성과 그 의미를 환기시키기 위함이다. 나아가 이 작업은 『판단력 비판』 내의 체계적 통일성을 확인하고, 비판 철학 전체의 완결성을 입증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참고 문헌

1. 칸트 원전

Kant, Immanuel, Kritik der reinen Vernunft(1781, 1787), hrsg. v. R. Schmidt, Felix Meiner Verlag, Hamburg, 1990

-----, Kritik der Urteilkraft(1790, 1793, 1799): Beilage: Erste Einleitung in die "Kritik der Urteilkraft" (Broschiert), hrsg. Heiner F. Klemme, Felix Meiner Verlag, Hamburg, 2006.

2. 원전 번역

임마누엘 칸트, 백종현 역, 『순수이성 비판 1,2』, 아카넷, 2006.

-----, -----, 『실천이성 비판』, 아카넷, 2009.

-----, -----, 『판단력 비판』, 아카넷, 2009.

-----, -----, 『형이상학 서설』, 아카넷, 2012.

임마누엘 칸트, 이남원 역, 『실용적 관점에서 본 인간학』, 울산대학교 출판부, 1998.

3. 이차문헌

C.H.벤첼, 박배형 역, 『칸트미학』, 그린비, 2012.

D.W. 크로포드, 김문환 역, 『칸트미학이론』, 서광사, 1995.

질 들뢰즈 저, 서동욱 역, 『칸트의 비판철학』, 민음사, 2006.

Henry. E. Allison, Kant's Theory of Taste: A Reading of the Critique of Aesthetic Judgmen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Béatrice Longuenesse, "Kant's leading thread in the analytic of the beautiful", Rebecca Kukla (ed.), Aesthetics and Cognition in Kant's Critical Philosoph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p.209-213.

Karl Ameriks, "Kant and the Objectivity of Taste", British Journal of Aesthetics vol. 23 (1983), pp.3-17.

Abstract

Intentionality of aesthetic pleasure toward subjective freedom : A study for the aggressive interpretation of aesthetic purposiveness

Park, Sieun
Department of Aesthetic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Kant claims that beauty is not an objective property of object but a special emotion of subjectivity. Moreover, since emotion of pleasure and displeasure is an indispensable element of human being with cognitive ability and desire ability, beauty is the value inherent in human beings. Therefore, the core task of Kant's aesthetics is the analysis of the subjective principle of aesthetic judgement, instead of analyzing the aesthetic property of the object. Kant argues that aesthetic judgment is based on the a priori subjective purposiveness, and furthermore, aesthetic pleasure is the basis of this judgment. Therefore, in order to understand the essence of Kant's aesthetic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relation of purposiveness and aesthetic pleasure. This article focuses on Kant's aesthetics, which is closely related to the sense of purposiveness and pleasure. I will argue that beauty is connected with the emotions of human being as an autonomous subject, and the subject of judging beauty reaches being conscious of subjective freedom through reflection on aesthetic pleasure.

As can be seen from the definition of "the form of the objectivity of objection (B61)", in Kant's aesthetics, beauty and purposiveness are closely linked. According to Kant, aesthetic purposiveness is not objective purposiveness such as usability or completeness but subjective purposiveness, that is, an object is represented as purposive one based on its subjective ability. At the same time, aesthetic purposiveness is widely known as a purposiveness without purpose in that it does not presuppose objective or ultimate purpose. But this does not mean that the purpose is completely lost in aesthetic purposiveness, but it means that the object is not limited to the concept of purpose or to ultimate purpose. This article tries to make a more aggressive interpretation of aesthetic purposiveness by arguing that

the aesthetic purposiveness does not merely mean the absence of an objective purpose but that the subject finds its own ultimate purpose for freedom in the judgment of aesthetic purposiveness. Although there is no presupposition of objective or ultimate purpose in aesthetic purposiveness, it can be found through reflection that the subject has the ultimate purpose of freedom in the cause of aesthetic pleasure and within the subjectivity. Kant 's aesthetics possesses significance in the critical philosophy in that this freedom is recognized as pleasure, not concept, and that this consciousness is provided through aesthetic experience.

From this point of view, it can be said that aesthetic purposiveness is in the context of a critical philosophy that criticize human ability as a free rational being. Thus, aesthetic pleasure and the freedom that it opts for are two key elements in order to understand aesthetic purposiveness. This article focuses on three concepts of aesthetic pleasure, intentionality, and freedom in order to get a clue to the understanding of aesthetic purposiveness. As for the aesthetic pleasure, many discussions have been made on the possibility of universal validity so far. This article will approach the aesthetic pleasure in terms of relevance with the purposiveness. Pleasure is closely related to purposiveness, for feeling pleasure means that any intention or purpose is satisfied. But not everything that brings pleasure is beautiful. Aesthetic pleasure should be an indifferent pleasure, which means that one should feel pleasure by attaining the goal without having a purpose before the pleasure is felt. Thus, if the aesthetic pleasure is not due to conformity with the external objective, it can be said that this pleasure signifies that the inherent intention of the subjective is achieved without being recognized beforehand.

Therefore, the analysis of aesthetic purposiveness leads to the examination of intentionality that is located at the root of aesthetic pleasure. In Kant 's aesthetics, the concept of intentionality is rarely discussed, but intentionality is the most essential concept in understanding the intrinsic meaning of purposiveness as a priori principle, and this concept is also inherent in aesthetic purposiveness. The difference between lawfulness and purposiveness lies in whether the object appears natural or intentional. If lawfulness involves a natural causal relationship, purposiveness implies the cause and consequences of intentional intervention. To see the nature as a lawfulness is understanding it as it is seen, and to see the nature as a purposiveness is understanding it according to the demand of reason that aims to reach freedom beyond what is visible. The aesthetic pleasure means that the intention of reason to reach freedom is achieved, and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aesthetic purposiveness includes the intentionality of the subjectivity

that is oriented toward freedom.

By explaining this, this article reaches a particular kind of freedom revealed in "Criticism of judgment". This freedom is subjective, because it is based on our reason, not on the outward reality and because it is given in the form of pleasure rather than the concept. We can not objectively ascertain freedom in nature, but we can recognize it as a form of aesthetic pleasure. An aesthetic pleasure is felt when playing freely by extricating imagination and understanding from the laws of understanding and the laws of practical reason. This is the freedom felt by emotion, the freedom by pure spirituality, the infinite freedom of the rational man. The subject who judges the beauty of a natural object acquires self-consciousness as a free rational being, connects the disconnection of the theoretical freedom and empirical freedom through the "freedom as emotion", and achieves the task of mediation of nature and freedom on a subjective level.

To understand Kant's aesthetics, a more aggressive interpretation of aesthetic purposiveness is required. In other words, the aesthetic purposiveness is not simply to find a purposeful representation based on the existing way of thinking, but to change the direction of the thinking itself from a lawful thinking to a purposive. Therefore, after pointing out how the purposeful thinking i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way of thinking, it should be explained how the purposiveness is connected to the aesthetic pleasure and how to reach the self-consciousness through beauty.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take out more positively the purposiveness from Kant 's aesthetics, the aesthetic pleasure from the purposiveness, and the self consciousness from the aesthetic pleasure.

This article focuses on analyzing the aesthetic purposefulness by focusing on the intention of the aesthetic pleasure which intends to maintain the condition of oneself and to reach consciousness of freedom through it, and the following three points should be noted. First, Kant 's purposiveness requires a reflective way of thinking that goes back to its cause from the result, which requires intervention of pleasure. Second, since the subject can not find the cause of the unconditional pleasure from the outside, one should find the cause of pleasure from within and be aware that the purpose of the subject of liberty lies in the cause of aesthetic pleasure. Third, by the intentionality of pleasure to stay in the free state, the subject reflects, contemplates the aesthetic object, and through this, the subject acquires self – consciousness as a free rational being.

The significance of Kant's aesthetic is not only to show the universal validity of emotional ability, but to reconcile and mediate between rational and emotional,

and between nature and freedom. This fact can be revealed only by precisely identifying the aesthetic purposefulness, paying attention to the link between pleasure and purposiveness. In addition, analyzing the aesthetic purposefulness based on the context in which purposiveness is requested can reveal that the judgment of beauty causes people to re – recognize themselves as free rational ones.

keywords : Kant, aesthetics, purposiveness, aesthetic pleasure, subjective freedom, self-consciousness

student number : 2013-22791